

차 O

미래의 희망 로스쿨
LawSCHOOL

2016. MAR + APR



03/04



- 강원대학교
- 건국대학교
- 경북대학교
- 경희대학교
- 고려대학교
- 동아대학교
- 부산대학교
- 세종대학교
- 서울대학교
- 서울시립대학교
- 성균관대학교
- 아주대학교
- 연세대학교
- 영남대학교
- 원광대학교
- 이화여자대학교
- 인하대학교
- 전남대학교
- 전북대학교
- 제주대학교
- CNU 중앙대학교
- 충남대학교
- 충북대학교
- 한국외국어대학교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KOREAN ASSOCIATION OF LAW SCHOOLS

사람은
행복하기로 마음먹은 만큼
행복하다

에이브러햄 링컨(Abraham Lincoln)

LawSCHOOL **창** **0**

미래의 희망 로스쿨

2016

03 + 04



발행일 2016년 3월
등록번호 2289-0262
발행인 오수근 이사장
편집·진행 김명기 국장, 박소희 주임
발행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02-752-2037)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1길 34, 5층
디자이너 편집회사 나무(02-2268-2592)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3길 51
인쇄 삼화인쇄(주)

표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

〈로스쿨 창〉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info.leet.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로스쿨 창〉에서는 소중한 원고를 기다립니다.
showe@leet.or.kr

- 04 **로스쿨 탐방**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혜진 원장
- 08 **행복 로스쿨**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평찬 학생
- 10 **SPECIAL REPORT**
1. 「변호사법」 얼마나 지키고 있나요?
2. 사법시험 존치 주장에는 숨겨진 의도가 있다?
- 16 **파워인터뷰**
MBC ARTs 이하림 변호사
- 20 **로스쿨 오피니언**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손종학 원장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남형두 교수
- 24 **특별기고**
법무법인(유한)정률 이찬희 변호사
중앙일보 임장혁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 배수득 변호사
- 32 **로스쿨 핫이슈**
- 34 **로스쿨 특파원**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기 박성태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기 천수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기 남기엽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기 김상욱
- 46 **책 읽어주는 변호사**
- 50 **그림 읽어주는 변호사**
- 54 **툰아보기**
- 56 **문화가 산책**
- 58 **협의회 소식**
- 59 **LAW 낱말퀴즈**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슬로건은 「동아시아 중심의 법학전문대학원!」이다. 오랜 전통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글로벌 전문 법조인을 길러내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그래서인지 동아대 법전원 학생들의 국제 대회 수상 소식과 해외 취업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스물다섯 명의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중 유일한 여성 원장으로서, 남다른 리더십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배출하고 있는 동아대학교 법전원의 이해진 원장을 만났다. editor. 박소희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해진 원장**

세계로 뻗어가는 법조인의 요람,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Q. 2009년 동아대학교 법전원이 첫걸음을 내디딘 뒤 현재까지의 성과를 총평해 달라.

A. 동아대학교 법전원은 국제경쟁력, 내실 있는 교육·연구를 위해 35명에 가까운 전임 교원과 로펌의 전문 파트에서 일하는 15명의 변호사를 겸임 교원으로 확보하고 있다. 최첨단의 전자모의법정을 비롯하여 6만 5천여 권의 장서를 보유한 법학전문도서관과 다양한 세미나실, 강의실, 개인학습실, 체력 단련실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무엇보다 해마다 검찰, 로클릭, 공공기관, 금융공기업 등 다양한 기관으로 역량 있는 졸업생들을 배출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국내·외를 막론한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며 전문 법조인으로서의 길을 가고 있다.

Q. 동아대학교 법전원이 내세우는 특성화 과목이나 커리큘럼은 무엇인가?

A. 지역의 특성과 법률수요를 고려해서 ‘국제상거래법’을 특성화로 정했고 관련 과목을 개설했다. 다년간 미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교수님들이 국제거래, 중재와 더불어 다양한 외

<표1> 주요 협정 체결기관

구분	실무수습기관	
국내	헌법재판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대한상사중재원, 법원행정처,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우리들, 법무법인 정인,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세경, 법무법인 신성, 법무법인 청해, 법무법인 삼덕, 법무법인 정률, 법무법인 지평지성, 법무법인 청률, 법무법인 로앤로, 법무법인 가람, (주)경동도시가스, 부산 가정법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외	미국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Law Office of Richard S.Kim, DIVERSITY LAW GROUP, P.C., Law Offices of Jane Oak&Associates, P.C., Kelly Law Registry
	중국	산동아화태 울산사무소, 절강천책 울산사무소, 중경백군 울산사무소, 중경로천 울산사무소, 중호율사집단사무소, 중경곤원 울산사무소, 북경국연자문 유한공사

국법 관련 강좌를 운영하는 등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문 법률가 양성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 또한 미국 현지 법률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미국, 중국 등 외국 대학과의 학점·학술교류 및 현지 로펌 등에서의 실무수습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동아대 법전원 학생들은 매년 세계 대회(홍콩 중재 대회 등)에서 상을 받고, 베트남 코트라 등 해외 취업에도 성공하고 있다.

Q.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다양한 기관과의 협정 체결이 눈에 띈다.

A. 동아대 법전원에서는 국내외 손꼽히는 법률 기관 및 대학과의 협정체결을 통해 실무수습, 학술교류 등 현장에서의 산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 23개 기관, 미국 5개 기관, 중국 7개 기관과 협정을 체결해서 실무수습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중국, 대만과도 꾸준히 학술교류를 실시하고 있다. (참고:표1) 이렇게 꾸준히 해외교육기관과 실무수습, 학술교류를 진행함으로써 전문성과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

Q. 졸업 후 학생들이 지역사회 공헌하고 있나?

A. 현재 부산 변호사회에 약 700명 가량의 변호사가 있는데, 그 중 동아대 법전원 졸업생이 이미 100여명에 육박한다. 뿐만 아니라 졸업생 중 절반 정도는 연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에 정착한 사람들이다. 이들이 하루아침에 부산시에 다리를 건설하고, 무엇을 설립해야만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이 아니다. 부산 시민들을 위해 법률 조력자가 되는 것만으로도 지역사회에 큰 공헌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은 자리 잡은 지 채 몇 년 지나지 않았지만, 차츰 부산에서 발생하는 현안에 대해서도 관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Q. 지방대 법전원이기에 느끼는 차별이나 어려운 점은 없나?

A. 가장 큰 차별이라고 느끼는 부분은 ‘변호사 시험 장소’다. 현재 변호사시험은 서울과 대전에서만 치를 수 있어, 동아대 법전원 3학년 학생들 중 약 70%는 대전으로, 나머지 30%는 서울로 가서 시험을 치르고 있다.

시험 며칠 전부터 지역을 옮겨서 숙소를 잡고 공부할 수 있는 장소를 구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쉽지 않아 학생들의 불만이 높다. 실제로 학생들이 이렇게 지역을 옮겨서 시험을 치면 체감상 약 10점정도 떨어진다고 할 정도다. 그러므로 부산·경남 지역, 영남·호남 지역에 변호사시험을 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돼 지방 법전원 학생들도 동일한 환경에서 시험을 칠 수 있어야 한다.

Q. ‘금수저 논란’이 여전히 뜨겁다.

A. 금수저 논란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고 사실에 근거한 비난도 아니며, 정치권에서 선거를



위해서 여론을 호도하는 것에 불과하다. 법전원에는 부잣집 학생도 가난한 집 학생도 있지만, 그에 앞서 사법시험을 통해서 변호사가 되겠다는 계획조차 세울 수 없었던 계층이 법전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법조인의 꿈을 이루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실제로 법전원 안에 들어와 보면 과거 사법시험만으로는 법조인이 될 수 없었던 취약계층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들에게는 장학금이 충분히 지급되기 때문에 과거 사법시험 시절보다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졌는데, 이러한 사실이 왜곡되고 있어 안타깝다. 법전원에서는 학생의 역량을 보고 선발하는 것이지만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따져가면서 선발하는 것이 아니다. 법전원에 선발되지 못한 학생들을 조사해 본다면, 그들 중에도 인사들의 자녀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금수저' 논란은 순전히 정치권에서 로스쿨을 폄하하고 악용하기 위한 주제에 불과하다.

Q. 법전원 제도의 도입으로 사회·경제·신체적 취약계층의 법조계 진출이 확대됐다. 긍정적으로 변화한 부분이 또 있나?

A. 법전원 제도의 도입으로 전국의 여성 변호사 수가 상당히 증가했다. 부산 지역만 봐도 현재 여성변호사의 수가 100명을 넘어, '부산지역 여성변호사 특별위원회'를 발족했을 정도다. 1989년도 부산 지역 여성 변호사 등록자는 나 한 명뿐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이미 부산 지역의 여성 변호사는 100명을 넘었고, 그 중 절반이 법전원 출신 변호사다. 그만큼 법전원을 통해 여성 변호사의 수가 팽창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남녀평등에도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Q. 법전원의 등록금이 비싸다는 평가도 있다.

A. 동아대 법전원의 경우 인가신청 당시 100명의 학생을 기준으로 32명의 교원을 확보했다. 그런데 신청인원보다 적은 수의 학생이 정원으로 확정됐고, 이것이 높은 등록금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교수 확보율을 실제 재학 중인 학생 수에 맞춘다면 등록금 인하가 가능할 것이다.

덧붙여 현재 취약계층에 대한 장학금 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학교에 재량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학교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장학금 지급률을 높이라고 요구하니 등록금액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는 학교와 정부 모두 노력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처음부터 등록금을 낮게 책정함과 동시에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성적우수 장학금을 지급하고, 국가에서는 특별전형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다.

Q. 곧 제5회 법무부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발표된다. 합격률에 대한 고민이 클 것으로 보인다.

A. 응시자 수와 무관하게 합격자의 수가 1,500명 선에서 고정되어 해마다 불합격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특성화 교육 등의 로스쿨 도입 취지와는 무관하게 변호사시험 과목에만 매달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변호사시험은 순수한 자격시험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변호사가 될 기본적인 역량을 테스트 할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실력을 갖췄다면 변호사 자격을 줘야 한다.

Q. 합격률 이외에 또 다른 고민은 무엇인가?

A. 교육부 평가, 대한변협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비롯해 법전원에 대한 각종 평가 절차가 상당히 많다. 과도한 평가로 인해 학생들에게 쏟아야 할 에너지가 평가를 준비하는 데에 쓰이고 있어, 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한변협의 경우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조직인데, 그곳에다가 법전원의 평가를 맡기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도 생각해봐야 한다.

Q. 8기 학생들이 입학했다. 새내기 법학도들에게 한 말씀 해 달라.

A. 법전원에 입학해서 3년 동안 공부하는 양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아서, 학생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했지만 변호사시험만 합격하면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은 절대 아니며, 혹여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이 있다면 매우 실망스러울 것이다. 변호사 수가 2만 여명이 넘어갔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자세로는 생존할 수 없다. 법조시장에는 이미 너무 많은 공급인력이 있으며, 가방 하나 들고 송무만 담당하는 변호사는 기존의 변호사로도 충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법률시장에만 머무르지 말고, 시각을 넓혀 보다 다양한 곳으로 진출해야 한다.

미국의 CEO 중에는 유독 로스쿨 출신이 많은데, 그들이 모두 사내변호사 출신은 아니다. 즉 일반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입사 시험을 쳐 차근차근 단계를 밟은 후 CEO가 된 것이다. 우리 학생들도 변호사 자격증에 안주하지 않고 몇 번의 시험도 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했으면 한다. 변화하는 세계에 더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자신만의 무기(외국어 등)를 개발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창**

66
전통적인 법률시장에만
머무르지 말고,
시각을 넓혀 보다 다양한
곳으로 진출해야 한다.

99



로스쿨에 입학한 후 모든 것이 바뀌었다. 고시원·독서실 비용을 벌기 위해 공부하는 시간을 쪼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도 돼 행복했다.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 자신감도 붙었다. “사시 공부할 때는 왜 이 문제를 못 풀었을까 싶을 정도로, 로스쿨에 와서는 시야가 넓어졌어요.” 로스쿨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원광대 김팽찬 학생을 만나봤다. editor. 박소희

원광대학교 로스쿨 6기 김팽찬

“로스쿨, 내 인생의 전환점”



야기를 들어서 아예 도전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렇게 2010년도까지 계속 사시2차를 치렀는데, 당시 함께 공부하던 형이 로스쿨에 먼저 들어가 내게 입학할 권유했다. 로스쿨에 입학해보니 장학금액이 많고 학자금 대출도 가능하니까 알뜰하게 쓴다면 집안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다닐 수 있다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가능성을 타진해 봤을 때 로스쿨에 가는 것이 법조인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사시의 경우 능력도 중요하지만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날의 컨디션에 좌우된다. 하지만 로스쿨은 이미 입학 당시 한번 필터링 됐기 때문에 법조인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봤다.

Q. 당시 생활비는 어떻게 충당했나?

A. 집에서 일부 지원받고, 모자란 부분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다. 많은 사람들이 사법시험은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는 제도라고 하지만, 사시는 ‘실력’, ‘체력’ 그리고 ‘재력’이 없으면 지속하기 힘든 제도다. 부족한 체력은 돈으로 대체 가능하지만 돈이 없으면 공부하기가 쉽지 않다. 당장 그 달에 내야 하는 방값, 학원비, 독서실비, 식비 등을 생각해야 하니까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한다. 물론 그렇게 아르바이트와 공부를 병행해서 합격하는 친구들이 있기는 하지만 정말 극소수다. 고시촌에는 시간의 밀도라는 것이 있어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하루가 한 달 같이 느껴지는데, 그 와중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 없고 결국 합격할 수 없다.

Q. 로스쿨 입학 후에도 아르바이트를 했는지.

A. 감사하게도 로스쿨에는 장학 제도가 탄탄하게 마련되어 있다. 장학금을 받고 있어 굳이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하다. 우리 학교를 비롯해 대다수의 로스쿨이 성적 장학금 이외에 학업보조 장학

금을 지급한다. 사법시험의 경우 장학금을 받을 길이 없어 국가유공자, 생활보호 대상자들은 공부를 이어가기 어렵지만 로스쿨은 다르다. 학비 보조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졸업할 때까지 공부를 지속할 수 있다.

Q. 로스쿨에 들어와서 가장 많이 변한 건 무엇인가?

A. 자신감과 안정감이다. 사시를 오래 했다는 것은 그만큼 실패를 많이 그리고 오래 했다는 것이다. 흔히들 욕시, 팔시가 넘어가면 ‘대가’라고 하는데, 그게 좋은 것이 아니라 그만큼 실패를 많이 했다는 뜻이다. 가족은 물론이고 주위에서 보는 시선들, 먼저 사회에 나가있는 분들에게 떳떳할 수 없다. 또 수입이 없기 때문에 한 달 한 달을 애태우면서 보내 불안하고 불안정하다. 로스쿨에 들어와서는 무엇보다 떳떳해지고 자신감이 생겼다.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도 있지만, 주위의 시선도 많이 달라졌다. 전에는 사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면 왜 아직까지 하고 있냐는 소리를 들곤 했었는데, 요즘은 로스쿨 다니다고 하면 다들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준다.

Q. 로스쿨 생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A. 공부만 하기 보다는 가능한 많은 활동을 하려고 노력했다. 검찰실무 등 다양한 실무수습에 참가했고, 대회 활동에 관심이 있어서 1학년 때부터 각종 대회에 참가했다. 1학년 2학기에 모의 공정위 경연대회에 참가했었고,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에도 참가해 형사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지난겨울에는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에 참가해서 우승을 했고, 개인상 수상을 하는 영광까지 얻었다.

Q. 실무수습과 각종 대회까지, 누구보다 알찬 생활을 하고 있다.

A. 그렇다. 아무래도 로스쿨에 들어오고 나니까 전에 없던 에너지가 생겼다. 사시 공부할 때에는 무조건 암기하기에 급급했고, 심지어 암기를 한 것도 제대로 표출하지 못했었다. 그런데 로스쿨에 입학한 것이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됐다. 시각이 바뀌어서 그런지, 훨씬 더 즐겁고 공부도 재밌다. 무엇보다 사시를 할 때에는 그때그때 나오는 결과물이 없지만, 로스쿨은 중간·기말고사 이외에도 각종 평가가 있고 성과물이 있으니까 성취도가 훨씬 높다.

Q. 졸업 후의 진로와 어떤 법조인을 꿈꾸는지 이야기 해 달라.

A. 로클릭(재판연구원) 또는 헌법재판연구관에 도전해 보고 싶다. 그리고 교과서적인 이야기로 들리겠지만 ‘실력이 있는 법조인’이 되고 싶다. 누군가를 도와줄 때에는 사회적 영향력으로 돕거나, 물질적 도움을

주는 등 무수히 많은 방법이 있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사비를 털어서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기부를 할 수도 있지만, 법조인이자라면 우선적으로 법적인 지식과 법적인 길을 통해서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적으로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사회운동가이지 법조인이 아니다. 법적 소양을 잘 닦아서 법률 해석과 적용에 오류가 없는 법조인이 되고 싶다. 창

김팽찬이 알려주는 법학전문대학원 합격 노하우!

본인에게 맞는 패턴을 찾아야 리트의 경우 공부를 한다고 갑자기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다만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지표가 생긴다. 추리를 예로 들면 여러 가지 유형과 패턴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본인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패턴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패턴에 대한 공부를 더 많이 해서, 시간 내에 풀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인이 평소 약하다고 생각한 유형의 문제를 풀 때 잘 풀리지 않으면 과감하게 넘어가야 한다. 오랫동안 붙잡고 있으면 시간만 흐를 뿐이다.

장기 전략과 단기 전략을 세워서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

장기적으로 학창시절부터 로스쿨 입학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미리 법학공부를 선행하기를 권한다. 법전을 외우라는 것이 아니다. 어린 시절부터 법조인을 꿈꿨다면 법에 관심이 있을 테니, 관련 서적을 읽어보거나 법률사무소 봉사활동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아무래도 현장을 경험하면 깊은 지식은 아니지만 실무적인 지식이 쌓이기 마련이다. 이미 사회에 진출해 있다가 로스쿨에 입학하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본인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다. 로스쿨 입시 준비를 하면서 갑자기 책을 열심히 읽는 분들이 있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이미 늦었다.(웃음) 스펙을 쌓기에는 늦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본인의 실력을 가장 잘 아는 것이다. 모의고사를 본 후 이 실력이면 어느 학교를 갈 수 있겠냐는 생각으로 전략을 짜야 한다.

의도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모범적인 그룹과 다소 불량한 그룹이 생겨난다. 한 교실에서 모범생과 일탈을 꿈꾸는 불량생이 자연스럽게 나누는 것처럼 말이다. '변호사' 집단도 예외는 아니다. 법조인 윤리를 확립하고 부정과 불의를 배격하는 변호사들이 있는 반면,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변호사들도 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변호사 윤리를 확립하고자 「변호사 징계사례집」을 발간했다. editor. 박소희

「변호사법」 얼마나 지키고 있나요?

변호사 강용석이 내건 변호사 사무실 광고가 연일 화제다.

지난 15일 서울 서초역 등에는 강용석 변호사 사무실의 이색적인 광고 포스터가 게재됐다. 포스터에는 강 변호사의 사진을 배경으로 '네! 고소'란 문구와 사무실 연락처가 담겨있다. 서울지방법변호사회는 17일 "강용석 변호사의 광고를 내주 광고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위원회 심사 결과 변호사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단 시정공고를 보낼 것"이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등 징계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현행 변호사법 제23조는 △변호사 업무에 관해 거짓된 내용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일부를 누락해 소비자를 오도하는 경우 △타 변호사를 비방하는 경우 △부정한 방법을 제시해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 각 지방변호사회가 철거 및 수정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사출처: 동아일보 2015. 09.18

1. 변호사 징계 건수

대한변협이 발간한 「변호사 징계사례집」에 집계된 변호사 징계건수는 2011~2014년 149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6년~2010년 징계건수인 173건보다는 다소 줄어든 숫자다.



2. 징계에 따른 처벌

징계건수는 줄어들었지만, 징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숨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사례 가운데 최고 처벌수위인 '영구제명'과 '제명'은 한 건도 없었다. 정직은 총 18건이었고 이중 정직 1년이 4건, 나머지는 모두 1년 미만이었다. 과태료 처분은 전체 징계건수의 80%가 넘는 122건으로, 1,000만~2,000만원 15건을 제외하고 대다수는 100만~500만원 선이었다.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은 9건이었다.

위반 사례	건수	위반 사례	건수
품위유지 위반	62건	사무직원 채용 미신고	5건
성실의무 위반	25건	연고관계선전 금지 위반	2건
수임제한 위반	12건	사건 유치 목적 위반	2건
변호사업무광고 위반	11건	겸직제한 위반	1건
변호인선임서 등 미제출 변호 금지 위반	10건	명의대여 등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위반	10건

3. 위반 사례

- CASE ①** A변호사는 지난 2008년 건물명도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진정인에게 공탁금 3억 원을 받았지만 2억원만 공탁한 채 나머지 1억 원을 공탁하지 않았다. 진정인이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하자 그제야 공탁을 약속했지만 2011년까지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정직 1년을 받았다.
- CASE ②** B변호사는 상습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맡아 보석허가를 조건으로 성공보수 3억 2000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일부 보석이 기각된 의뢰인이 1억 2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자 변호를 하며 알게 된 비리를 수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를 받았지만 법무부 이의 신청에서 100만원으로 감경됐다.
- CASE ③** C변호사는 교통사고 사망사건 관련 소송을 맡았지만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5100만 원을 받아 자신의 빚을 갚는데 사용하는 등 의뢰인의 돈을 횡령하고 과태료 20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 CASE ④** D변호사는 사무실을 낸 후 직원에게 명의를 대여해주고 그 명목으로 5500만 원을 받았다. 해당 직원은 2006~2011년 변호사 명의로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 사건 445건의 4억원 가량을 수임했다.
- CASE ⑤** E변호사는 자신이 맡은 소송과 관련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담당 재판부가 상대 변호사와 결탁해 '봐주기 판결'을 하고 있다는 등의 글을 올려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 CASE ⑥** F호사는 자신에게 형사사건 의뢰인을 소개해 준 고등학교 선배에게 500만 원을 건넸다. 의뢰인 측은 F변호사에게 착수금 1000만원과 함께 성공보수 5000만 원을 조건부로 미리 지급했다. 2개월 후 F변호사는 선배에게 2500만 원을 더 줬다. 이로 인해 F변호사는 과태료 20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

국민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를 지키자는 사법시험 존치론자들. 과연 그들은 '오로지 국민만을 위하여' 사법시험을 지키려고 하는 걸까? 혹시 그 이면에 국민에게 말하지 않는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닐까? support. 고려대학교 로스쿨

사법시험 존치 주장에는 숨겨진 의도가 있다?



"환상의 짝꿍, 대한변호사협회와 국회의원"

1. 대한변호사협회의 숨겨진 의도는?



대한변호사협회
KOREAN BAR ASSOCIATION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회장은 취임 당시 이러한 취임사를 남겼습니다.

“최근 우리 변호사는 매년 약 2,500명씩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인구가 2.5배, GDP가 4배 수준인 일본의 변호사 연간 매출 수는 1,810명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변호사가 급격히 과도하게 증가하면 법률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심각한 불균형이 초래되어 법률서비스의 질이 상당히 악화될 것입니다. 변협은 법률시장의 안정과 소비자의 권리를 위해, 현재의 변호사 배출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사법시험을 유지하여 '법률소비자의 권리를 위해' 변호사 배출수를 줄이겠다는 하창우 회장의 발언은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시장원리에 따르면 변호사의 수가 늘어날수록 법률서비스의 가격이 낮아질뿐더러, 변호사들 간의 경쟁을 통해 더욱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공급할 가능성이 커지는데도 말입니다.

2016년 100명의 변호사를 배출할 예정인 사법시험과 매년 1,500여 명의 변호사를 배출하고 있는 로스쿨 중 과연 어떤 것이 더 소비자를 위한 선택일까요? 하창우 회장의 주장은 결국 법조인 수를 줄여 기존 변호사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함은 아닐까요?

2.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국회의원은?

“토론회장 입구에는 '관악발전협의회'의 축하화환이 세워져 있었고, 토론회가 시작되기 약 20분 전이었음에도 토론회장은 이미 주민들로 만석이었다 ... 대한민국 법조인 양성 제도에 관한 찬반 토론의 장에 관악구발전협의회의 축하화환과 신림동 원룸 임대인들의 참석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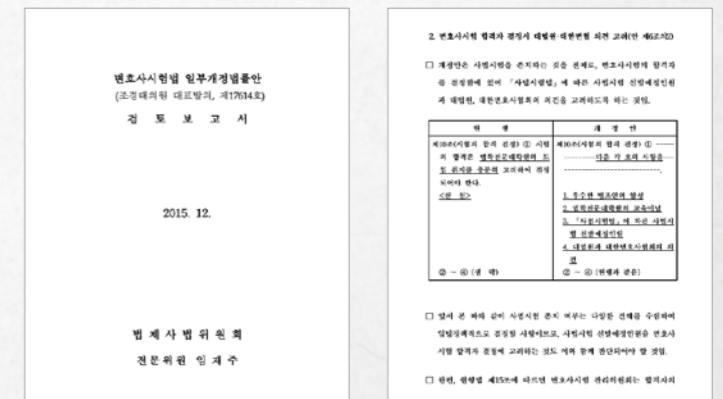
출처: 2015.6.23. 뉴스토마토 사설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새누리당의 오신환 의원의 지역구는 어디일까요? 바로 신림동으로 대표되는 '고시촌'이 있는 관악구입니다. 오 의원은 국민을 위한 소신 있는 발언을 한 것일까요, 아니면 다가올 2016년 총선에서 지역구인 '관악구'의 표심을 얻기 위한 것일까요? 관악구 주민들이 사법시험 존치를 원하는 이유는 고시촌에서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준비생들이 안타깝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숨겨진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요? 2015년 6월 18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국회 대토론회가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층에서 열렸습니다. 사법시험 존치는 우리의 미래, 우리 모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주장하는 존치론자들. 그러나 '고시촌'을 유지함으로써 개인적인,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고시촌 임대인들의 이해관계가 이 문제에 개입되어 있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3. 대한변호사협회와 오신환 의원, 환상의 짝꿍이 된다.

오 의원을 비롯한 일부 국회의원 및 지역구의 이해관계는 대한변협의 '변호사 수 통제'라는 이해와 일치하였고, 이들 간의 유착관계는 현재 제출되어있는 변호사 시험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통하여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법시험 존치, '국민을 위한다'는 허울 뒤의 '숨은 목적'이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변호사시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



로스쿨 비인가 대학교 법대 교수들,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

1. 인천대학교 백원기 교수



※ 사진출처: KBS1 심야토론

지난해 12월 5일 밤에 방영된 KBS1TV 심야토론 “사법시험 존폐 논란, 어떻게 할 것인가?”에 출연한 인천대학교 백원기 법학과 교수는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리트, 면접시험을 봅시다만, 솔직히 실제로 제가 아는 많은 원장들은 전화로 입학의 독려를 부탁한다든지 많은 지연, 학연에 의해서 얽매이는 우리나라 사회구조에 의하여 공정하게 입학을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내년 4월 총선에서 사법시험 폐지를 주장하는 야당 국회의원들, 특히 친노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따끔한 심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국민투표를 해서 사법시험 폐지 여부를 확정하기를 바랍니다. 다만 법조직역에 종사하는 변호사, 법학교수, 변리사, 노무사 등을 제외하고 일반국민들에 의해서 투표를 하면 사법시험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등의 발언은 백 교수가 어떠한 ‘사실’이나 ‘논리’에 근거하지 않은 채 무의미한 주장만을 펴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 먼저 백 교수는 로스쿨 시험의 공정성에 대하여 출처 없는 유언비어성 발언으로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설령 백 교수가 지적한 일이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로써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지, 로스쿨 제도 자체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러한 예외적, 범죄적 행위로 로스쿨 제도를 공격하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2) 또한 이번 논의와는 무관한 “친노” 등의 정치적 발언과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국민투표” 등의 자극적 발언들을 보면 백교수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2. 국민대학교 이호선 교수



※ 출처: 제337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입시회의록) 제5호

작년 11월 18일 법사위 공청회에서는 국민대학교 이호선 법학과 교수도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도읍 위원이 사법시험 준비생들의 한 달 생활비에 대해 조사한 바 있는지를 물어보자)

이호선 교수: “39만원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39만원 같으면 하루에 1만원 꼴인데 그건 식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호선 교수: “숙식을 뺐습니다. 숙식은 무엇을 하든 간에 들어가는 일상적인 숙식을 빼고 시험을 준비하는 학원비 또 각종 동영상 듣는 교재비 이런 것들을 다해서 한 39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나왔습니다.”

(1) 이 교수는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숙식 등의 제반 비용을 제외한 비용을 언급하여 사법시험준비의 비용적 측면을 축소하고자 했습니다.

(2) 한편 이 교수는 이미 다른 나라에서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 받는 “사법제도 이원화” 정책의 구체적인 문제는 감추고, 이러한 문제들이 사법시험 존치를 통해 어떻게 해결 될지는 구체적인 방안조차 제시하지 않은 채 “독도발언”과 같이 전혀 무관한 상징만을 차용하여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로스쿨에 대한 반대와 사법시험 존치를 앞서서 주장하시는 백원기, 이호선 교수님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분 교수는 각각 인천대학교, 국민대학교의 법학과 교수입니다. 2007년 로스쿨 유치 신청 당시, 인천대학교는 송도 캠퍼스 이전으로 로스쿨 전용건물 확보 등 실질적인 로스쿨 인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접수 직전 포기를 밝혔고, 국민대는 신청은 하였으나 결국 인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출처: 법률저널, '인천대, 로스쿨 연기', 연합뉴스-‘현재, ‘로스쿨 탈락’ 국민대 헌법소원 각하’ 앞서 백원기, 이호선 교수님은 로스쿨 인가대학 발표 이전인 2006년, 공동성명을 통해 로스쿨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 로스쿨법안 전면 저지와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을 위한 전국법학교수 659명 선언문

그동안 우리 법학계와 법조계가 직면해 온 여러 문제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제야 본격적인 개혁이 이루어진다는 데 대해 다소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환영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최근 국제화, 개방화로 인하여 전문변호사에 대한 수요가 격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법조인양성체도를 개혁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명백하다.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려는 모색의 결과이다.

(중략) 우리 법학교수들은 로스쿨의 도입이 법학교수들에게 각고의 개혁노력을 요구하는 사업임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로스쿨을 지지하고 올바른 로스쿨의 도입을 요구하는 것은 최소한의 학자적 양심과 사회와 역사에 대한 책임의식 때문이다.

2006년 2월 14일 전국 법학교수 659명 일동(백원기, 이호선 교수 서명 포함)

※ 출처: 고려대학교 로스쿨 바로알리기
Inside Lawshchool
<http://insidelawshchool.kr/?p=861>

로스쿨 인가발표 이전에는 로스쿨 도입에 찬성하던 분들이, 갑작스레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몇 년 사이 이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

철학자 칸트의 규칙적인 생활습관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칸트는 오전 5시에 일어나 간단한 준비를 마친 뒤 강의 준비와 집필에만 매달렸고, 오후 1시에 점심을 먹고 난 이후에는 일체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다고 한다. 정신과 육체의 균형을 잘 유지하기 위함이었다. 이하림 변호사의 로스쿨 재학 시절 별명은 '칸트'였다.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짐작하는 건 어렵지 않았다.

editor. 박소희



“변호사이지만 동시에 직장인, 생생한 현장감 느낄 수 있어서 좋아요!”

MBC ARTs 이하림 변호사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3년

로스쿨에서 보낸 첫 해, 120명의 동기들 중에서 이하림 변호사의 성적은 바닥이었다. 밤새도록 법전을 읽고, 쉬는시간도 없이 암기를 했지만 시험지만 보면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화여대에서 정치외교학과 미술사학을 전공했기에 ‘법학’은 그녀에게 낯선 학문이었고, 그래서인지 철저하게 상대평가 제도를 유지하는 로스쿨에서 일 년간 ‘꼴찌’ 타이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학부 시절부터 인문, 예술 분야에 관심이 많았어요. 꿈꿈이 생각해보니 모든 분야를 전문적으로 포괄하는 벤다이어그램의 중심에는 ‘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로스쿨에 입학했는데 1학년 때 성적이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만 뒤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그랬던 그녀가 달라지기 시작한 건 2학년에 올라가면서부터다. 매일 해가 뜨기 전 가장 먼저 정독실에 자리를 잡고 공부를 시작했다. 혹여 배탈이 나서 일정이 흐트러질까 먹는 것도 제한했을 만큼 독하게 공부했다. “단 하루도 못 쉬 게 아니라 쉬지 않은 거예요. 당시에는 1등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중간만 가자고 생각했거든요. 실 틈이 없었어요.”

로스쿨은 사법시험 제도와 다르게 정해진 수업시간이 있고 그에 따른 방과 후 활동을 할 수 있어, 게으르지만 않다면 다양한 활동을 하며 법조인이 될 자양분을 얻을 수 있다. 부지런함이 몸에 밴 그녀는 형사법 학회와 미디어콘텐츠 학회를 오가며 활발한 활동을 했다.

“형사법 학회에서는 실제 사례를 분석·발표하면서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함께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공부를 했어요. 미디어콘텐츠법 학회는 언론고시를 준비했던 분들이 모여서 만든 학회예요. 저희 기수에 언론인 출신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였어요. 미디어법이나 콘텐츠, 저작권 판례들에 대해 분석하고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치열했던 시간이라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것 같다고 묻자 돌아오는 대답은 의외였다. 로스쿨에서의 3년이 지금까지의 삶에서 가장 재미있고 행복했다는 것. 그리고 그건 전남대 로스쿨에 입학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대답이었다. 집에서 통학을 할 수 있는 수도권 로스쿨과는 다르게, 전남대 로스쿨은 도심과 동떨어진 외지의 느낌이 강하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숙사나 학교 앞 원룸에 모여 살아,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의식주를 함께 해결하다보니 그들에게 동기와 선·후배는 가족과 다름없다. 로스쿨을 포기하려고 했던 그녀를 잡아준 것도 소중한 동기들이었다. “전남대 로스쿨은 공익·인권법을 특성화로 하고 있고, 등록금이 저렴해서 정말 다양한 분들이 입학하고 있어요. 동기 중에는 저희 어머니와 동갑인 분도 계셨고, 저보다 어린 친구도 있었거든요. 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모이다보니 아무래도 그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죠.”

MBC 아트의 사내변호사로

인고의 열매는 달았다. 성적은 차츰 올랐고, 2-3학년 때는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했다. 졸업시험도 한 번에 통과했고, 변호사시험도 무난하게 합격해 변호사 자격증을 받았다. 졸업 후 입사하게 된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서의 첫 발을 내딛었고, 민사와 행정의 여러 사건들을 처리했다. 사기, 마약, 성매매알선, 강간 등 형사 사건에 있어서도 많은 경험을 했다.

그러던 중 이하림 변호사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으니, 바로 MBC 아트의 사내변호사 모집 공고였다. 예술 계통에 종사하는 가족들이 많아 어린 시절부터 예술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학부 시절 미술사학까지 부전공했으니 자기 개발과 본업을 동시에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무엇보다 이 변호사는 회사라는 조직과 시스템 안에서 스스로 성장해나가는 구조에 매력을 느꼈고, 주저하지 않고 MBC 아트 사내변호사에 지원했다.

MBC 아트는 문화방송의 자회사로, MBC에서 방영되는 모든 프로그램의 세트·의상·분장 등을 관장한다. 회사 특성상 저작권, 소유권 등의 문제를 비롯해 하도급 업체들과의 계약 및 분쟁이 잦은 편이다. 이 변호사는 계약 단계부터 사전 검토와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법률 검토를 맡고 있으며, 사후 분쟁 소송에도 관여해 협의·합의의 역할을 하고 있다. “드라마 세트장에 가수 사진을 붙이거나, 뽀로로 인형 하나 놔두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저작권, 소유권 문제는 돈하고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사전에 리스크를 없애야 해요.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역할이고, 만약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소송으로 대응하거나 합의하고 협의하는 일까지 하고 있어요.”

‘빨리 빨리’가 관습적으로 굳어진 방송계. 정해진 룰(role)대로 진행되면 좋겠지만, 방송 시간에 맞추다보면 중간 과정을 건너뛰게 되는 것이 고질적인 병폐다. 이 변호사가 처음 MBC 아트에 입사했을 때에도 그랬다. ‘빨리빨리’를 원칙으로 하다 보니, 계약서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대다수였고 이는 많

사법시험 출신이라고 해서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재는 로스쿨 출신이라 실수한거야' 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는 않아요. 이런 마음은 아마
모든 로스쿨생의 마음일 거예요.
일종의 사명감 같은 거죠. 99

은 분쟁을 일으켰다. 문제를 파악한 이 변호사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로 '표준 계약서'를 만드는 것이었다. 의상 임대·임차 계약서, 미술 용역 공급 계약서, 협찬 계약서 등을 세분화해서 표준 계약서를 만들었다. 저작권에 대한 분쟁이 잦아, 저작권 매뉴얼도 개발했다.

“회사에 변호사는 저 한명이예요. 제가 모든 계약서를 일일이 다 써줄 수 없으니, 표준화된 문서가 있으면 편리하겠다고 생각했어요. 또 저작권에 대해서 직원들이 미리 알아둔다면 사전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테니까 매뉴얼이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작했죠.”



생동감 넘치는 현장, '살아있는 변호사'

“아무래도 일반 회사나 로펌에 있는 분들보다 더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어요.” MBC 아트 사내 변호사로서 어떤 점이 가장 매력적인지 묻자 돌아온 대답이다. “물론 일반 로펌에 계신 분들도 저작권 분쟁 사건을 맡아서 할 수 있죠. 다만 저는 그들과는 다르게 보다 생생하고 현장성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에요.”

예를 들어 드라마 세트 저작권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일반 로펌에 계신 분들은 페이퍼를 통해서만 사실 확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 경우에는 옆자리에 앉은 디자이너분께서 직접 만든 세트고, 그 세트를 봤기 때문에 보다 자세하고 생생하게 알 수 있다는 점, 즉 현장 속에서 일한다는 것이 가장 매력적이에요. 저는 변호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현장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그만큼 재미있고 생동감이 넘쳐서 살아있음을 느끼죠.”

즐거운 방송 현장에서 사내 변호사로서 근무하는 이 변호사에게도 나름의 고민은 있다. 직원이 180여명에 이르고, 하도급, 파견직, 협력직까지 합하면 300여 명에 달하는 회사에 변호사는 이 변호사

한 명.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다. “제가 변호사로서 했던 공부의 양과는 무관하게 처음 입사를 했을 때에는 방송 시스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정답처럼 알더라고요.(웃음) 제가 말하면 다 정답으로 여겨주시니, 책임감도 커지고 오히려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됐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변호사의 어깨를 더 무겁게 하는 것은 변호사로서의 책임감보다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라는 타이틀이었다. ‘로스쿨 출신이라서 그래’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한다는 이 변호사. 알고 있는 지식도 두 번 세 번 확인한다. 혹여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면 로스쿨을 졸업한 선배, 동기 그리고 후배들을 욱먹게 하는 것이라는 부담감이 훨씬 크다. “사법시험 출신이라고 해서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재는 로스쿨 출신이라 실수한거야' 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는 않아요. 이런 마음은 아마 모든 로스쿨생의 마음일 거예요. 일종의 사명감 같은 거죠.”

이 변호사의 업무 외 시간은 직원들의 법률 상담 시간으로 활용된다. “동료들이 교통 위반 딱지만 날아와도 제게 찾아와요.(웃음) 처음에는 법에 대해서 다들 겁먹었지만, 요즘엔 많이 유연해진 거 같아요. 메스컴에서는 법조인에게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사회라고 하지만, 저 같은 변호사 한 명이 회사에 있음으로서 그냥 편하게 물어볼 수 있게 된다면, 조금 더 행복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창**

이하림 변호사의 TIP! TIP! TIP!

Q 일반 송무 분야가 아닌 다양한 직역으로 진출하기 위한 변호사님만의 노하우가 있나요?

A 송무 시장 외에 다른 직역으로의 진출을 꿈꾸고 있다면 조금 더 부지런할 필요가 있어요. 변호사 시험이 끝나고 합격자 발표가 나기 전까지 자칫하면 풀어질 수가 있는데, 그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해요. 저의 경우에는 하루도 집에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학부와 로스쿨의 경력개발센터에 찾아도 가고, 사람이나 커리어케어 같은 구인구직 사이트에 직접 전화했죠. 또 친구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친구들에게 헤드헌터들의 연락처를 받아서 연락했죠. 경력은 없지만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할 수 있을만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발로 뛰지 않으면, 어떤 직장이 나에게 맞는지 알 수 없어요.

Q 사내 변호사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가요?

A 사내 변호사는 변호사이자 조직의 일원입니다. 회사와의 운명공동체로서 함께 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해요. 회사에서는 '이윤 창출'을 위해서 직원을 선발했고, 조직의 일원이 된 이상 회사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옳아요. 이를 위해서는 법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조직에 융화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실력이 있어야 하는 건 기본적인 문제이고, 조직에 대한 이해와 유연함이 필요해요.

사시 존치, 그것은 미련이다



손중학 원장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수많은 젊은이들이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는 미명을 내세우며 청춘을 걸고 매달린 시험, 어느 수재 법학도는 다시 태어난다 해도 그 길을 또 가겠다고 자신 있게 외칠 정도로 높은 가치를 부여받던 시험.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합격만 하면 수직적 신분상승을 이룰 수 있음은 물론 온 집안의 영광이자 동네의 자랑으로 잔치를 벌이던 시험. 그래서 산업화시대에 가진 것 없는 자의 유일한 희망 사다리로 기능해온 시험. 그것이 바로 사법시험이었다.

지난해 우리 사회를 양분하며 가장 뜨겁게 달궜던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이 사법시험의 존속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사법시험은 2017년에 치러질 2차 시험을 끝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운명에 놓였다. 그것이 사회적 합의였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사법시험에 대한 향수는 일부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의 부분적 문제점을 기회로 이미 무덤 앞에까지 가 있던 사법시험을 심폐소생술로 다시 일으켜 세우려 하고 있다. 그 시도는 해가 바뀔 2016년에도 그치지 않은 채 여전히 다툼의 뇌관으로 잠복돼 있다.

사람들은 나에게 묻는다. 아니 무언의 압력으로 강요한다. 당신은 사시 존치론자인지 사시폐지론자인지 궁금하다고. 그러니 밝혀달라고. 그 물음 뒤엔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지금은 로스쿨 교수로 있는 필자의 처지가 곤혹스러울 수도 있다는 지레 짐작으로 약간의 고소함과 동정심이 섞인 묘한 미소가 담겨 있음을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한 치의 망설임 없이 답한다. 사시는 예정대로 폐지돼야 한다고. 아니 진작에 폐지됐어야만 했다고 말이다. 묻는 자들의 얼굴은 때론 낭패감으로, 때론 신기함으로 채색된다. 그리곤 이내 되묻는다. 왜냐고.

사법시험은 분명 나름의 장점을 가진 제도이고, 우수한 법조인 양성에 기여해온 점도 부인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그것이 갖고 있는 공정성과 서민을 위한 희망 사다리 기능은 여전히 매력적이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힘써 보존해 나가야만 할 소중한 가치다. 그러나 거기까지다. 사회와 유리된 채 20대, 30대 청춘을 담보로 깊은 산사나 한 평짜리 고시촌 골방에서 오직 법학만을 기계적으로 공부한 자는 유능한 법기술자나 엘리트 법조인은 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렇지만 인간에 대한 끝없는 연민과 삶의 깊이를 가진 자상한 법률가, 다양한 전공을 토대로

각자의 전문영역에서 활약하는 전문 법률가, 보통 시민의 눈높이에서 그들과 동고동락하며 살아가는 이웃으로서의 법률가, 외국어능력과 글로벌 마인드로 국제사회에서 당당히 국익을 지킬 수 있는 열린 법률가는 사법시험제도에서는 결코 쉽게 나올 수 없는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이런 법률가들은 다양한 학부 전공을 가진 자들에게 법학 교육을 시켜서 법조인으로 양성해내는, 즉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제도'인 로스쿨시대에서나 나올 수 있는 얘기다.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법률가는 과연 누구인가. 답은 명확하지 않은가. 법률가를 위한 기능적 법률가가 아닌, 우리를 위한 시민 법률가임이.

혹자는 이의를 제기한다.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을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을 병존시키자는 것이라고. 그렇게 하면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제도의 순기능은 유지하면서도 사법시험만이 갖는 고유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이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달콤한 함정이다. 고시난인, 학부교육의 황폐화, 법기술자, 소수의 엘리트 법률가, 이런 단어들과 결별하자고 우리가 어렵게 결단한 끝에 도입한 것이 바로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이 아니던가.

그런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 이들을 존속시키자고? 그래서 구시대가 갖고 있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자고? 이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리고 양자의 병존으로 인한 한정된 자원의 낭비와 법조계를 둘러싼 갈등과 혼란은 또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기존 제도의 유지를 원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설렘에 기한 것일 수도 있고, 미련에 따른 아쉬움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이 경우 우리가 취할 의사결정의 기준은 설렘에 기인할 때에는 제도의 유지를, 미련일 때에는 폐지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비록 미련과 설렘이 기존 제도의 유지를 바라는 감정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양자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설렘은 우리에게 좀 더 나은 희망을 이야기하지만 미련은 아쉽지만 버려야 할 유습일 뿐이다. 스스로 자문해보자. 사법시험은 우리에게 설렘으로 다가오는가?, 아니면 미련으로 남는가? 사법시험이 갖고 있던 일부 순기능이 좋다고 이를 존치시키자는 것은 미래로 나아가는 설렘이 아니라 과거로 돌아가는 미련일 뿐이다.

이제 미련을 버리고 사법시험을 역사의 뒤안길로 놓아주자.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갖고 있던 일부 장점을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에 접목해 로스쿨 제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지를 논하자. 사시 폐지를 전제로 한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문호 확대와 장학 제도의 확충, 야간·온라인 로스쿨의 도입 검토와 좀 더 공정한 입시제도의 연구, 아직은 부족한 실무 교육의 내실화 등등. 이런 것들이 2016년 우리 사회의 논의 주제가 돼야 한다. 그것이 장강의 도도한 흐름이고 역사의 섭리다. 사시 존치, 그것은 조금 아쉬울 수는 있지만 그러나 과감히 버려야 할 미련일 뿐이다. **창**

출처: 디트뉴스24 2016-01-12

司試 존치, 어른 대한민국에 아기웃 입히는 꼴



남형두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지만 기본적으로 대법원 소속인 사법연수원은 판·검사를 양성하는 직무교육 기관이다. 법률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변호사 교육기관으로는 부적절하다. 변호사 업무를 '서초동' 중심으로 보는 한에서는 로스쿨 제도가 불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을 다루는 영역은 서초동에 한정되지 않는다.

법이라는 텍스트만으로 경제, 사회, 문화, 국제관계 등의 콘텍스트에 담벼드는 법률가는 법률 환경에 대한 지식의 빈곤 때문에 시장에서 배척당하기 십상이다. 일개 외국 기업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외국에서 국제 분쟁을 제기하고, 국내 기업이 외국 법원에서 제소당하거나 수조원 짜리 특허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이때 우리 정부나 대기업조차 국내 변호사를 외면하고 외국 변호사를 선호하는 것은 외국어 능력 때문만은 아니다. 박지성과 류현진이 영국과 미국의 프로 스포츠 리그에 진출할 때, 국내 변호사가 외국 구단과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

학부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변호사가 경제 분석이 필요한 공정거래 분쟁에, 의학 전공자가 의료 분쟁에, 이공계 전공자가 특허 분쟁에, 문학 전공자가 표절 분쟁에, 정치외교학 전공자가 영유권 분쟁 또는 국제기구 진출에 뛰어들다면 법학 전공자가 개별 사건을 공부해 가면서 처리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로스쿨 제도의 본질은 여기에 있다.

필자가 아는 사례를 소개한다. 변호사가 되리라곤 꿈도 꾸지 않았던 패션 전공 학생이 우연히 저작권법 특강을 들은 후 법학에 흥미를 느껴 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가 됐다. 조만간 패션 분야 전문 법률가가 될 것이다. 래퍼 출신으로 로스쿨을 나온 변호사는 열악한 래퍼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법률 지식을 연마하고 있다.

취미로 미술을 배운 로스쿨 학생은 현재 공익법무관 재직 중인데 제대하면 미술협회에서 이보다 더 좋은 변호사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 이들은 아직 기성 변호사에 비해 미약하지만, 조만간 해당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이다. 로스쿨 제도가 가져온 변화의 시작이다.

다양한 학부 전공자가 법률가로 진출하는 것은 사시 제도하에서도 가능하긴 하다. 그러나 합격률 3%인 이 시험에 도전하느라 제 전공을 소홀히 한다면 무늬만 타 전공자일 뿐 사실상 법학 전공자나 다를 바 없다. 로스쿨 도입 이전 대학 도서관마다 고시원이었던 풍경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가뜰이나 취업이 어려운 이때 사시라는 끝 모를 시험의 문을 다시 활짝 열면, 고시 낭인화는 과거보다 더 심각해질 것이다.

사시 존치에 일부 변호사가 동조하는 속내는 결국 변호사 숫자의 감축에 있고 로스쿨은 그 타깃이 된 것뿐이다. 송무(訟務) 중심으로 보면 변호사 수가 과다한 것이 분명하지만 법률가의 영역을 넓게 보면 아직 그 수가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장애인 단체,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 백만원 수입도 보장받지 못하는 창작자 등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곳은 여전히 많다.

오늘날의 복잡다단한 법률 환경에서 개인, 기업, 정부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률가가 필요하다. 사시는 이런 요구를 충족하는 데 로스쿨에 결코 앞설 수 없다. 사람이 성장하면 어릴 때 입던 옷을 입을 수 없다. 이미 어른 몸이 되었는데 과거에 맞지 않아 장롱 속에 넣어둔 옷을 다시 꺼내 입을 수는 없지 않은가. **창**

출처: 조선일보 2015-12-24

66
오늘날의 복잡다단한 법률 환경에서
개인, 기업, 정부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률가가 필요하다. 99



쿠바 아바나 여행기

청춘이란 때론 어디론가 훌쩍 떠날 줄 알아야한다.

법무법인(유한) 정률 · 전 대한변협 사무총장
이찬희 변호사

프롤로그

대학시절 늘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 하던 법대 후배가 있었다. 마음은 그러했지만 몸은 습관적으로 도서관 책상 앞을 떠나지 못하면서 그로 인해 항상 스트레스를 받는 그 여자 후배의 책 사이에 어느 가을날 “청춘이란 때론 어디론가 훌쩍 떠날 줄 알아야한다”라는 메모지를 넣어 주었다. 후배는 다음 날 바다를 보겠다며 혼자 부산으로 떠났고 며칠 후 밝은 표정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렇게 훌쩍 어디론가 떠나지 못하고 정신없이 살아왔다. 변호사 사주에는 분명 역마살이 있을 것이다. 변호사라는 직업이 폼 나게 사무실 책상 앞에만 앉아서 일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소송을 하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의 법원을 찾아다녀야하고, 의뢰인이 요청한다면 전 세계 어디라도 서류 가방 하나 들고 떠나야 한다. 역마살이 없고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일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막상 일과 무관하게 마음 편히 어디로 떠나지는 못한 채 매일 서류와 컴퓨터 모니터를 쳐다보며 살아간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수없이 외친다. “아, 정말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야 말거야”

언제, 누구와? - 친구야, 모히토 한 잔 하러 가자.

전생에 무슨 관계였는지 만나면 마냥 좋은 절친한 고등학교 동창들이 있다. 35년 이상을 만났으니 더 나



쿠바의 청소년들과



쿠바 전통의상 할머니와 함께

늘 이야기도 없을 것 같은데 아직도 소주 한 잔에 밤새 수다를 떠다.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은 결혼식 사회도 봐주고 이혼소송까지 해 주었다. 세상 어디에도 흔하지 않을 특별한 관계인 이 친구의 취미는 사진촬영이다. 작품전까지 개최했을 정도니 아마추어의 수준은 넘은 듯하다. 어느 날 모여서 술 한잔하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쿠바로 사진촬영을 떠나겠다고 한다.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일었다. 1월 말이면 법원 인사철이라 재판도 별로 없고 변호사들한테는 상대적으로 한가한 시기이다. 그래서인지 얼마 전 유행한 영화대사를 패러디한 “그래 친구야, 모히토 가서 아바나 한 잔하자”라는 말이 거침없이 나왔다. 스몰이 갓 넘었을 때부터 수없이 생각해왔던 훌쩍 떠나는 여행이 30년도 더 지난 후에 마침내 이렇게 출발하게 되었다.



모히토

왜? - 아바나가 나를 불렀다.

단순히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아바나로 떠날 결심을 한 것은 아니다. 오래 전부터 가장 가보고 싶었던 여행지가 쿠바의 아바나였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용기를 낸 것이다. 쿠바는 북한하고만 단독수교를 하고 우리와는 미수교국인 지구상에 몇 되지 않는 국가이다. 그 쿠바의 수도 아바나를 간다는 것은 공간적 거리만큼이나 심리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았다. 미국과는 지난 2015년에 국교가 정상화되었다. 그렇다면 우리와도 머지않아 수교할 듯하다. 쿠바는 경제적으로 보면 아직 개발의 여지가 무궁무진한 기회 땅이다. 한편으로는 스페인과 미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다양한 역사와 문화가 형성된 우리가 쉽게 접하지 못한 이국적인 나라이다. 서슴없이 출발을 외치게 한 아바나가 예전부터 나에게 보여준 매력은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첫째,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한 영원한 혁명가 체 게바라의 뜨거운 열정이 살아있는 도시이다. 아르헨티나 출신 의사인 그는 젊은 시절 오토바이로 남미대륙을 횡단하면서 라틴아메리카의 역사와 민중들의 삶에 깊은 자극을 받고 쿠바 혁명에 뛰어 들었다. 혁명이 성공한 후 외국인으로서 재무장관까지 역임하였지만, 다시 새로운 혁명을 찾아 모든 것을 놓고 훌쩍 떠난 후 볼리비아에서 체포되어 총살당한 그의 드라마 같은 삶이 젊은 시절 나의 심장을 늘 쿵쾅거리게 하였다.

둘째, 노인과 바다에서 “사람은 파멸당할 수는 있을지언정 패배하지는 않는다”라는 문장만으로도 인간과 삶과 자연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한 대문호 헤밍웨이가 사랑한 도시이다. 카리브해의 거친 파도와 뜨거운 태양마저도 사랑과 문학으로 승화시킨 헤밍웨이의 숨결이 아직도 남아있을 것 같은 도시가 내 컵가에 어서 오라고 유혹의 종을 울리고 있었다.

셋째, 쿠바 독립의 아버지이자 어린 시절 뜻도 모르고 흥얼거렸던 쿠바인의 아리랑 ‘관타나메라’를 지은 서정시인 호세 마르티의 따뜻함이 넘쳐나는 도시이다. 지금은 딱딱하기 그지 없는 소송서류에 파묻혀 살고 있지만 한때 서정시를 쓰던 문학 소년이던 시절이 있었다. 그 당시 서정시인이라고는 미당 서정주 정도를 알던 친구들에게 호세 마르티를 아느냐며 으쓱하곤 하였다. 쿠바인들은 체 게바라나 카스트로보다 호세 마르티를 더 존경한다는 말을 들었다. 역시 그랬다. 쿠바의 관문인 아바나국제공항의 이름이 호세 마르티 공항이었고, 거리 곳곳에, 심지어는 개인 집 앞에도 호세 마르티의 동상이 있었다. 쿠바인의 가슴에 따뜻한함과 강인함을 동시에 심어준 영원한 쿠바인 호세 마르티가 아바나의 혁명광장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다.

마지막으로 진실은 허구보다 감동적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 준 영화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의 배경이 된 도시이다. 영화를 책보다 더 좋아하는 나의 가슴 속에 이 영화는 아바나를 각인시켜 놓았다. 지금 생

각하면 유치함의 극치였지만 나의 이름 중 가운데 글자가 두 번이나 사용되었다면서 위 영화의 처음과 마지막 배경음악인 콰이 세군도의 대표곡 '찬찬'이 나를 위한 노래라고 우기던 시절이 있었다. 위 영화의 모델이 된 같은 이름의 재즈 밴드의 노래소리가 아직도 아바나에서는 들려올 것만 같았다. 이 모든 매력의 보고인 아바나가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불렀다. 운명처럼 그곳으로 떠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모든 매력의 보고인 아바나가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불렀다. 운명처럼 그곳으로 떠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떻게? - 50이 넘어 떠난 배낭여행

이왕 훌쩍 떠나기로 했으니 청춘처럼 떠나기로 했다. 해외여행 자유화가 풀리기 전에 대학을 다닌 세대 인지라 배낭여행을 경험해보지 못했다. 이번 기회에 청춘의 전유물인 배낭여행을 한번 해보기로 하였다. 캐리어와 서류가방대신 배낭에 짐을 꾸렸다. 비행기와 숙박도 최대한 저가를 이용하였다. 아바나에서는 하루에 조식 포함하여 10불짜리인 민박집(카사)에서 묵었다. 진정으로 원했던 쿠바인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서 지냈다. 저가항공의 시간에 맞추느라 인천에서 출발해서 비행시간만 17시간 반, 환승까지 포함하면 27시간 만에 도착하니 기진맥진이었다. 그러나 몸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오랫동안 소망해 왔던 것을 이룬다는 것만으로 진정 행복하였다.

어디서? - 마음껏 아바나를 느끼다.

너무도 낯선 풍경이었다. 무엇보다도 도시를 감싸고 있는 방파제가 눈에 들어왔다. 스페인어로 말레콘이라고 하는데 거친 카리브해의 파도로부터 도시를 지켜주는 한편, 아바나 사람들의 휴식처였다. 그 말레콘에 잠시 누었다가 자장가처럼 들어오는 파도소리에 깜빡 잠이 들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가득 펼쳐지는 파란 색이 하늘의 빛인지, 바다의 색깔인지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그 푸르름이 주는 평온함이 너무도



아바나 건물과 올드카

좋고 행복하였다. 이국적인 스페인 풍의 낡은 건물들 사이로 지나는 올드카, 거리 어디에서나 보이는 호세 마르티의 동상과 체 게바라의 사진, 골목 마다 들려오는 노랫소리, 헤밍웨이가 즐겨 찾았다는 카페에서의 모히토 한 잔, 지나치며 눈이라도 마주치면 환한 미소를 지어주는 행복한 표정의 사람들, 이 도시의 모든 거리와 사람들에게서 아바나가 느껴졌다.

무엇을? - 삶에 대한 겸손과 여유를 배우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쿠바의 아바나에서 물질보다 마음의 풍요가 더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줄 수 있으니 삶에 겸손하라는 가르침과 행복이 삶의 여유에 정비례함을 배웠다. 좋은 술과 음식을 먹으면 그 순간이 행복하고, 좋은 명품을 가지고 있으면 버릴 때까지 기분이 좋지만, 여행을 다녀오면 그 추억과 행복이 죽을 때까지 함께 한다고 한다. 여행은 시간과 비용의 낭비가 아니라 가장 효용이 높은 행복에 대한 투자라고 할 것이다. 다른 이에게는 어디론가 훌쩍 떠나라고 권유도 하고, 마음속으로 늘 떠나고 싶어 했지만 정작 그렇게 살지 못했다. 여행이 끝나고 되돌아 와서 생각해보니 역시 떠나기를 잘했다. 이 모든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아쉬움과 이제라도 알게 되었다는 만족감이 동시에 남는다. 이제는 자신있게 권할 수 있다. “그대 청춘인가요. 그럼 한번쯤 훌쩍 떠나보세요” **창**

이찬희 변호사

무엇이든 하지 않고 아쉬워하기보다는 실패하더라도 도전해보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고자 한다. 변호사인 것에 늘 감사하고 행복해하며,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법률신문사 논설위원, 사케소물리에 등으로 활동할 정도로 영화, 글쓰기, 술을 좋아한다. 아주 알팍한 정의감이 있어 사회적 약자나 소수를 괴롭히는 것을 참지 못한다. 무엇보다도 사람을 좋아한다.



민박집(카사)에서 거리를 보며



말레콘에 누워



아바나의 야경



다시 구경꾼으로...

중앙일보 사회2부
임장혁 기자

13년 전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변호사 자격증을 들고 돌아온 곳은...

흰 두부같은 모양의 건물 안에서 하루에도 수백 편의 부조리극이 펼쳐지는 그곳 서초동 극장. 2003년 2월에 시작했던 첫 직업에서 처음 맡았던 업무는 부조리극을 구경하는 일이었습니다. 법조출입 신문기자.

그냥 보기만 하는 구경꾼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저기 툭툭 끊겨져 있고 등장인물들이 전체 맥락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억울함을 쏟아내는 말들을 어떻게든 이어붙여 '이해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보려고 죽을 힘을 다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검찰도 찾기를 포기했던 사건 관련자를 찾아 미국의 어느 도시를 뒤흐기도 하고, 명동 사채시장을 몇 달간 들쭉서도 보고, 누군가의 집 앞에서 누군가를 하염없이 기다리기도 하던 술한 날들. 부조리극장을 탈출한 뒤에도 구경꾼 생활은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어느덧 햇수로 8년. 어느 날 갑자기 '할 만큼 했다...'는 생각과 함께 물려드는 무기력함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천근이었지요. 지금도 그때 'OO엄마가 "그만뒀도 좋아"라고 해주지 않았다면 삶이 어떻게 뒤틀렸을지 상상만으로도 소름이 돋곤 합니다.

첫 직장을 떠난 뒤엔 장애인을 돕는다는 단체에도 잠시 다녀보고, 사업을 한다는 친구들의 홀로서기도 거들어보다 시작했던 로스쿨 생활. 애 둘 딸린 흡수저 유부남에게 로스쿨이란 보통일이 아니더군요. '내 머리 속 지우개'와 사투를 벌이던 3년 동안 틈만 나면 밀려오는 생각은 '구경꾼 생활이 왜 그리 힘들었을까'였습니다. 처음엔 '배우가 아니라 구경꾼이기 때문'이라고 생각

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곱씹어보니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건 어느덧 능숙하게 '스토리'를 빚어가고 있는 자신이었습니다.

꽤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 '내가 만든 스토리에 '사실(Fact)'이 아닌 건 없어'라는 자기합리화로 버티곤 있었지만 뭔가 자꾸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부조리 자체가 가장 진실에 가까운 표현태일진데 계속 스토리를 입혀야하는 일이란... 13년 전만 해도 꽤나 강조되던 형식적 객관성은 언론계 전체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때론 '촌스럽다'는 이유로, 때론 '읽히는 글'을 써야 한다는 상업적 강박 때문에. 억지로 이어붙여야 했거나 누군가의 스토리를 위해 다른 사람의 스토리를 희생시켜야 하는 일들의 곤란함. 그러던 새 첫 직장을 구했을 때 가졌던 유일한 각오였던 '팩트 파인딩에 모든 걸 걸어야 한다'는 믿음은 '스토리텔링'의 시류 속에 갈수록 설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얼마나 경직된 생각, 혹은 배부른 생각, 또는 순진한 생각인가. '팩트 파인더'가 직업과 관련해 유일하게 설정했던 자아였다니. 그렇게 된 것도 이유는 있었습니다. 무늬만 역사학도 시절 느꼈던 공허함이 발단이었지요. 한때 역사는 즐치며 외우는 것이었는데, 대학에서 만난 역사도 이미 '스토리텔링'의 열풍에 심하게 녹아내린 뒤의 무엇이었습니다. 아무리 옛일을 미분해 진위를 따져본들 '과거 그대로'의 복원은 불가능하다는 원초적 회의 속에, 남아 있는 흔적 사이사이를 구라발로 엮어가면 된다는 듯한 재미있는 역사책들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교조를 좋아했던 것도 아니지만 작자가 설정한 스토리에 맞지 않는 흔적들은 기각되고 와꾸에 맞는 흔적들만 '역사'로 옹립돼 '그럴싸함'을 경험하는 세계. 덕분에 인식의 상대성이 어찌니 텍스트

66

누구보다 능력있는 변호사였지만

약한 자들에게 늘 인간적이고 친절했었다는 것. 99

의 당파성이 어찌니 하는 풍월도 율게 됐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지 못할 뿐 실존했던 '진짜 사실'이란 게 있는 건 아닐까'하는 집착에서 벗어나기 어려웠습니다. '내 눈으로 보면 좀 시원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를 첫 직업에 걸게 된 것도 그래서였습니다.

곡절 끝에 로스쿨에 오게 된 데는 '구경꾼' 보다는 '대리인'이 좀 더 활력있지 않을까하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게 진짜"라고 강변하기 위해 계속 뭔가를 찾아 헤매느니 시원하게 누군가를 세계 편드는 일이 속 편할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는 생각이 든 건 한 한기 한 학기 지나가면서 '요건-사실'의 실체를 느끼게 되면서였습니다. DOGMA, '스토리텔링'이라는 틀보다 더 무시무시한 DOGMA라는 괴물과 맞닥뜨리게 될 거라는 걸 왜 처음부터 생각하지 못했을까. 언론이나 역사학을 지배하는 '스토리'의 압박보다 훨씬 촘촘하고 지배적인 형틀 같았던 그 것. '요건+사실'이란 표현 자체가 형용모순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사실은 요건을 위해 펼쳐지지 않고 진실은 법적으로 의미없는 어떤 점에 있는 경우가 더 많지 않던가요. 그 구구절절한 사정들 중에 '요건'과 관계없는 소리는 하지도 말라는 그 오만함. 그제야 구경꾼시절에 봤던 여러 풍경들이 이해되는 것 같았습니다. 왜 능력있는 법률가들에게서 사람냄새를 맡기가 그리 어려웠는지, 왜 그들은 그렇게 자아도취가 심했는지. 그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그랬던 건 아닌지.

돌아온 지 6개월여 동안 한 일 중 기억나는 건 故 조영래 변호사의 25주기를 기념해 젊은 변호사들이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을 만나 들어온 술회를 연재물로 정리했던 작업입니다. 조영래가

위대했던 건 그가 진보적이어서도 스펙이 좋아서도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능력있는 변호사였지만 약한 자들에게 늘 인간적이고 친절했었다는 것. 요건과 관계없는 그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듣는 데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것.

고백컨대 변호사 자격을 갖고도 13년 전 그 자리로 돌아온 건 '능력'도 '휴머니티'도 수준있게 가꿀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 하나 희망과 목적이 생겼습니다. 도그마의 그물망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도 자아도취에 흠뻑 젖어있는 자들의 거품을 콕콕 찌러보는 송곳이 되고 싶다는 희망.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는 생각. 그런 희망을 찾은 것만으로도 늦깎이의 로스쿨 3년은 의미있었던 게 아닐까요. **창**

임장혁 기자

2003년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중앙일보에 입사했습니다. 7년여 동안 대북송금 특검, 차떼기 수사, 유명철 살인사건, 대구지하철 사고, 인도네시아 쓰나미, 중소기업 산업현장과 취업난, 이명박 대 정동영 대선, 그리고 지리멸렬했던 야당 등을 두루 구경했습니다. 잠시 외유 끝에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뒤 다시 중앙일보에 다니고 있습니다.



노동분야 개척을 위한 전문화

한국경영자총협회
배수득 변호사

우선 로스쿨 제도를 두고 요즘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지만, 좌고우면(左顧右眄)할 것 없이 먼저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게는 로스쿨에 입학하고 변호사가 되는 일련의 과정이 큰 기쁨이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대학 전공으로 법학을 선택한 그 순간부터 제 꿈은 법조인이었으니까요. 법학과 출신이신 로스쿨 재학생들은 특히 더 공감하실 겁니다. 오랜 시간 사법시험을 준비했던 저로서는 로스쿨 과정을 다니는 것만으로도 기쁘게 공부할 충분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 당부드릴 점은 변호사시험과정이 한두 달 바짝 공부하면 끝나는 시험이 아니니 생활리듬 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라며 노동 분야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노동전문 변호사로 첫발을 내딛기

“기업들 통상임금처럼 일반하고·취업규칙 변경관련해서도 올해 법정다툼 대비를 해야”, “아 슬프다 감정노동자들...”, “정부는 열정페이 처벌을 위한 인턴 가이드라인 마련키로”, “전교조는 법외노조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 및 효력정지신청 낼 것”이라는 뉴스를 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뉴스들의 공통점은 모두 노동법적 쟁점을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원래부터 노동은 개인의 삶의 문제로 중요한 것이었지만, 요즘처럼 사회 이슈 전면에 노동 분야가 대두되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소위 잘나가는 변호사라고 하면 지적재산, M&A, 조세 등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일정부분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분야도 블루오션은 없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이미 변호사시장 그 자체가 블루오션이 아니고, FTA 개방을 앞두고 시사각각으로 법률시장은 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유사직

역으로부터 심대한 도전을 받는 변호사영역에 있어서 전문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문화라는 것이 해당분야 책을 좀 더 읽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도 처음부터 노동 분야를 전문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차근차근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학부시절 노동법의 대가이신 박수근 교수님 강의를 통해서 노동 분야에 대한 첫인상이 좋았고, 가까운 노무사가 있어 노동 분야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을 뿐입니다. 굳이 한 가지 의미부여를 하자면 노동 분야는 근로자들의 생존문제이자 삶의 질과 연결되는데, 그것은 결국 자유시장경제질서를 따르는 우리나라 국정 전반의 시스템과 직결된 부분이 많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노동사건은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사실상 5심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노동위원회사건이 법원에서 다시 다루어지는 경우는 전체사건의 10%가 채 안 됩니다. 노동사건 중 대표인 부당해고를 예로 들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와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방법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신청과 민사상 해고 무효확인의 소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하나를 선택하거나 양자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는 해고된 날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이 있지만, 후자는 그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그 이하의 규모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효력은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에 대하여 이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이고, 구제명령에 따라 직접 노사간의 근로관계에 있어서 사법

상의 법률관계를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법원을 통한 구제방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대부분은 보다 간이·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선결적으로 거치는 것이 통례입니다. 노동위원회 사건에는 노무사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실제로 변호사보다 노무사가 노무사건에 관해서는 더 전문성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변호사들이 노동위원회의 특성을 모르고 민사소송 하듯이 해서 변호사의 승소율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변호사들이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가 늘고 있고, 대형로펌에서도 선제적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노무사는 소송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의뢰인의 완전한 구제를 위한 과정에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노동 분야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금과옥조(金科玉條)로 여기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관계법에 대한 판례법리를 집적하고 선도하여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만들어가는 일도 변호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노동 사건에서는 관행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법치주의 관점에서 볼 때 장기적으로는 법제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이런 점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노동 분야로 관심을 가지신다면 자연스럽게 극복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5단체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언론을 통해 “지난해 9월15일 노사정위원회는 대타협을 이루었지만, 올해 1월 한국노총은 9.15 합의파기선언을 하였다.”는 내용을 들어보셨나요? 경제5단체 중 하나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단위 사용자단체로 재계를 대표해서 노·사·정위원회의 사용자 측으로 참가합니다.

반면,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노조 조직률이 전체 근로자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도 노동자 측을 대변해왔습니다. 노·사·정위원회는 임의기구이지만, 수많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까닭에 노동관계 정책이나 제도는 대부분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대통령이 노

동개혁 선상에서 요구하는 기간제법, 파견법 등이 그런 것들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임금체계는 호봉제구조로 되어 있어 생산성은 전적으로 개인의 성품에 의존하다보니 효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요즘 점점 더 평생직장이 없어지는 현실에서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 시스템을 강화하고, 직무와 성과 중심의 동기부여가 잘되는 임금체계를 만들어야 선진국으로 가는 체질로 바뀝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변화무쌍한 산업변화에 대응하기위해 임금체계 개선을 통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이루어내고, 정부의 사회안전망 시스템을 독려하는 일등을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노동 분야를 경험하고 느낀 것이 있다면, 선악구도로 노사관계를 바라보는 것은 전체를 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노·사·정이 모두 함께 노력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든 과정, 즉 노사가 자율적인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에 우리 변호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 소신과 신념이 분명하신 분들께는 서초동에서 일반 송무를 하시는 것보다 정부의 정책 속에 자신의 의견을 녹여내는 기관이나 단체의 소속변호사가 될 것을 추천 드립니다. 특히 개인의 삶과 직결된 노동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의 삶을 한번쯤 고민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창](#)

배수득 변호사

한양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하여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진출의 기쁨을 온 국민과 함께한 뒤 사법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군복무 후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지금은 경제5단체 중 하나인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각종 노동관련 현안 업무를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관문, 제5회 변호사시험 실시

지난 1월 4일(월)부터 8일(금)까지, 4일간(6일(수) 휴식일) 전국 6개 고사장에서는 제5회 변호사시험이 실시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변호사시험 응시 접수자는 3,115명으로, 첫날 기준으로 91.9%의 응시율을 기록했다. 시험 당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오수근 이사장을 비롯한 법전원 원장들은 시험 고사장을 순회하며 학생들을 격려·응원했다. 합격자 발표는 4월 26일(화)로 예정되어 있다.

시험장을 방문한 김명기 사무국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전지연 교수(연세대학교), 오수근 이사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석원석 차장(연세대학교 행정실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원광대 '재동백송' 팀, 제2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대상 수상

1월 22일(금)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제2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의 본선 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에서 원광대 법전원 학생들로 구성된 '재동백송'팀(김윤지, 김평찬, 유찬희)이 우승을 차지했으며, 팀원 중 김평찬 학생은 개인 수상자로도 선정돼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2등상인 금상은 한양대 '경청'팀(송기현, 유건우, 이호진)이 수상했으며, 은상은 충남대 '충전'팀(박종현, 심재홍, 정석함)과 아주대 '헌드림'팀(가혜리, 김택빈, 손도형)이 공동으로 수상했다. 총 4팀에게 수상하는 동상은 고려대 '3인의 보충의견'팀, 경희대 '생각건대'팀, 부산대 '헌법주문'팀, 충북대 '헌재진행형'팀이 차지했다.

우승팀(원광대 법전원팀, 유찬희·김평찬·김윤지)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출처: 헌법재판소



제7회 가인법정변론 경연대회

민사분야 중앙대, 형사분야 이화여대 우승

2월 1일(월)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는 제7회 가인법정변론경연대회 결선이 열렸다. 총 126개팀(378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는 민사, 형사 부문 각 36개팀이 본선에 올라 열띤 경연을 펼쳤다. 최종 결선에 올라간 12팀 중, 민사부문에서는 중앙대 법전원팀(이지윤, 최단비, 하연지)이, 형사부문에서는 이화여대 법전원팀(최희정, 박수영, 최이진)이 최우수상인 '가인상'을 차지했다. 개인 최우수상은 서현민(서울대 법전원, 민사부문)학생과 김두수(강원대 법전원, 형사부문)학생이 수상했다. 이 외에도 가장 많은 팀을 진출시킨 팀에게 주는 소통상은 서강대 법전원이, 종합성적 1위상인 자유상은 한양대, 2위상인 평등상은 중앙대가 차지했다.

민사부문 우승팀(중앙대 법전원팀, 최단비·이지윤·하연지)
형사부문 우승팀(이화여대 법전원팀, 박수영·최희정·최이진)
사진출처: 법률신문



제2의 삶을 열어준 법학전문대학원에 발전기금 약정한 정명순 변호사

강원대 법전원 출신 변호사가 자신의 모교인 강원대에 발전기금을 약정했다. 원주 정명순 법률사무소 정명순 변호사(사진)는 7일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은 나의 제2의 삶을 열게 해준 곳으로 도움을 주고 싶었다"며 발전기금 2,500만원을 약정했다. 정 변호사는 강원대 공과대 전자공학 박사 출신으로 시간강사, 인문한국 사업단 BK21 연구교수로 활동하다 2001년 법전원에 입학해 원주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현재 강원 지방변호사회 이사, 미래창조과학부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 원주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 등을 맡고 있다. 기사출처: 강원일보 2016-01-08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경희대 법전원 학생들 백령도로 봉사활동 떠나

경희대학교 법전원 리걸클리닉은 지난 1월 27일(수) 백령도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백령도민과 함께하는 무료 법률상담 활동'을 실시했다. 백령도 무료법률상담은 법률사각지대에 있는 도서지역 등의 무변촌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경희대학교 법전원의 사회공헌활동이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리걸클리닉 센터장 범경철 교수와 13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특히 생업 때문에 무료법률상담소에 찾아오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 교수와 학생이 함께 팀을 이뤄 방문상담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실시해 주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왔다.

리걸클리닉 센터장 범경철 교수와 학생들이 백령도 지역주민들과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동아대-부산대 법전원 취업박람회, 밤 11시까지 문전성시 이뤄

지난 2월 4일(목) 부산대와 동아대가 공동으로 마련한 '로스쿨 취업박람회'가 부산 동래구 농심호텔 허심청 대청홀에서 열렸다. 이날 취업박람회에는 법무법인 국제·정인·지평 등 부산지역 유명 로펌 25곳과 서울지역 로펌 1곳, 경남·울산지역 로펌 15개 등 모두 40여 곳의 로펌과 법률사무소가 참여했다. 취업박람회는 밤 11시가 다 되어가도록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아, 현장의 뜨거운 열기를 짐작하게 했다. **창**

취업을 앞둔 법전원 학생이 취업박람회장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2016년도 제7회 법조윤리시험 실시 예정

시험과목	법조윤리
시험방법	선택형 필기시험(40문항)
응시자격	법학전문대학원의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사람
시험일정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공고 2016-07-22(금) 시험일자 2016-08-06(토) 합격자 발표 2016-09-21(수)
원서접수	2016년 7월 1일(금) 09:00 ~ 7월 6일(수) 24:00
접수방법	인터넷 응시원서 사이트(http://moj.uwayapply.com) 변호사시험 홈페이지(www.moj.go.kr/lawyer)
응시수수료	50,000원



마침표를 찍으면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명예기자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기 박성태



66

혼자하기 어려운 일도 나누면 반이 되듯,
공부도 함께 임하면 반이 될 수 있다고 아직은 믿고 있다.
앞으로 차가운 시험장에서 더 많은 따뜻한
법조인의 탄생을 기대해본다. 99

달리는 기차 위에 발을 올린 지 어느덧 3년이 되었다. 막연한 종착지가 내게도 올까라는 생각을 하며 살다보니 어느새 변호사시험을 마치게 되었다. 처음 시험후기를 요청받았을 때, 부끄럽기도 하고 아직 합격자 발표도 없는데 이런 글을 쓰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도 했다. 하지만 이런 기우는 합격후기로 넘기고, 내 로스쿨 생활 중 하나의 축이었던 로스쿨을 바로 보는 '창'을 통해 짧은 소회를 남기기 위해 용기를 내었다.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만들어지고 이제 8년차의 안정기에 접어든 로스쿨은 작년 이맘 때 로스쿨 생 모두가 아픔을 겪었다. 그 논쟁의 타당성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당장 시험을 30여일도 채 남기지 않은 수험생은 모두가 힘들었고 지쳐있었다. 한 달 여의 논쟁 끝에 시험은 일정대로 진행되었고, 시험은 추운 겨울 날씨만큼이나 거침없이 어려웠다. 기존의 출제경향을 기본으로 유지하되, 국가최고시험으로서의 권위와 품격을 잃지 않으려는 시도가 눈에 띄었다. 여타 시험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것인지, 아니면 한 번 어렵게 내보자라는 출제위원의 숨은 목소리가 있는 것인지 새로운 시도가 있었고, 그 덕분에 시험은 수험생 '탄식'이 절로 나올 정도로 난이도가 높았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서류 전형은 학점, 자기소개서, 어학 점수로 구성되어 있다. 자기소개서에는 기본적인 학업성취도 이외에 국제거래 특성화 관련 수업 이수와 외국어 구사능력을 강조했으며, 베트남 시장의 현황, 법률시장으로서의 가능성 그리고 예비법조인으로서의 포부 등을 나름대로 열심히 녹여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법무부에 제출하는 1차 전형에 합격하면, 2차 전형으로 각 로펌에서 개별 면접을 보게 된다. 면접은 2일에 걸쳐, 오전·오후 총 4조로 나누어 이루어졌고, 한글면접과 영어면접이 병행하여 이루어진다. 면접 전형에 영어 면접에 대한 언급이 정확히 없어 별 생각 없이 면접장에 들어갔는데, 면접 보시는 변호사님께서 한글로 이런저런 질문을 하시다 갑자기 영어로 질문을 하셔서 당황했던 기억이 난다.

이제 새롭게 수험생이 된 후배님들에게

짧은 지면에 담는 조악한 이 글은 앞으로 후배님들에게 전하는 먼저 시험을 본 한 원생의 경험담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이정표로 삼으면 될 뿐, 그 이상의 가치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

5회 시험 총평

5회 변호사시험은 이제 5회 차에 접어든 만큼 새로운 시도들이 여럿 있었다. 그리고 과감하게 어려웠다. 객관식은 지문이 길어지고, 사례형으로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다. 또 기존의 책형 내에서 과목이 철저히 분리된 것과 달리 1책형도 조금은 섞이도록 문제를 배치한 특이점도 있었다. 기록들은 모두 난이도가 어려웠고 새로운 형태로 집행정지신청이나, 어음청구가 출제되었고 사례의 경우 5점짜리 문제가 다수 출제되어 시간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다수 있었다. 이번시험은 어떤 과목 분야를 버리고 가면 리스크가 크다는 점을 드러낸 시험이었고, 난이도가 급상승할 때는 오히려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었지 않나 싶다. 이제는 합격률이 급감하는 만큼 예년처럼 특정 선배만큼 헤서는 필패하기 쉽고 시험환경이 어려워지는 만큼 더 분석적인 접근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얇고-넓고-많고-깊게!

같이 공부하는 동기나 후배들에게 필자가 쉽게 꺼내든 수험을 이끄는 좌우명과도 같은 조언이다. 공부할 과목도 무한히 많거니와 계속 탄생하는 새로운 판례, 조문, 이론을 모두 알고 확실히 정복하고 수험장에 가야된다는 생각은 수험생으로서 오만일 수 있다.

더욱이 실무가를 양성하는 변호사시험은 단순 암기적인 지식보다는 주어진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이번 시험은 그러한 시험본질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려는 시도가 엿보인 점이 특기할 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으로서 전부를 알려는 욕심을 조금은 접어둔 채 중요한 줄기를 먼저 다소 얇더라도 전체를 아우르는 공부를 하는 한편, 그 이후에 넓게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다루고 중요한 내용은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숙지한 후에 특정 분야들에 관해서는 깊이 있게 공부하려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합격하는 법이고, 불합격을 피하는 법이다.

去去去中知 行行行裏覺(거거거중지 행행행리각)

가고 가고 가다보면 알게 되고, 행하고 행하다 보면 깨닫게 된다는 뜻이다.

수험 생활동안 무수히 많은 양에 치여서 과연 이 시험이 가능하기는 한 시험일까라는 의문이 계속 들기 마련이다. 이럴 때마다 묵직하고 차분하게 시험에 주체적으로 맞서는 태도가 중요하다. 시험도 사람이 만든 것이니 하다보면 할 수 있지 않을 까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우직하게 수험을 이끄는 것이 좀 더 건강한 수험생활이 될 거 같다.

추운 겨울이 가고 봄이다. 따뜻한 봄이 오기 위해서는 차디 찬 겨울이 필요하듯이 이 추운 시간을 견디고 버텨야 한다. 그 가는 길이 정의로운 법조인이 되기 위한 길이고, 따뜻한 법률가가 되기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감당하면서 퍼즐조각 하나씩 차분히 만들어가는 것도 즐거운 일이 아닐까 싶다. 창

변호사시험 후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명예기자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기 천수이



66

어떤 책을 보는 것과 상관없이 두꺼운 기본서라도
시험 직전 일주일에 내가 한 번을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놓으면 합격할 수 있는 것

99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 천수이라고 합니다. 아직 합격자 발표가 나지 않아 제 미래 역시 불투명한 시점에서 변호사시험 후기를 작성한다는 것이 망설여지기도 했지만 제가 느끼고 생각한 것들이 후배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하시는 글 정도로 받아들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접수단계

서울권 시험장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기존의 자신이 공부하던 학교나 거주지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시험장을 선택하거나 학교시설 등(기숙사, 편의시설, 주차장, 도서관, 책상·의자가 분리형인지 여부)을 미리 알아보고 이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지방의 로스쿨을 다니는 학생들은 충남대로 지원을 많이 하고 올해도 700여명의 인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저는 충남대를 선택하였고, 선택한 대로 충남대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본가가 서울에 있어 서울권 시험장을 선택할까 고민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같은 시험장에 2~3명이라도 동기가 있는 것이 심리적으로도 안정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과적으로 큰 힘이 됐습니다.

시험장 역시도 당일 컨디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접수 이전에 선배들에게 자신이 지원할 시험장에 대해 알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3. 시험 전 단계

5회 시험(1월4일)을 기준으로 시험장 배정은 11월 27일에, 기숙사가 있는 학교는 12월 30일을 전후하여 입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동아대의 경우에는 용달트럭을 불러 동기들의 짐을 한꺼번에 신고 용달트럭이 출발한 뒤 각자 KTX를 타고 자신의 시험장인 충남대와 건국대에 미리 도착하여 짐을 받았습니다.

택배로 짐을 보내면 이틀정도는 책을 보지 못하는데 반해 용달을 이용하니 3-4시간 만에 책을 받을 수 있어서 편리했습니다. 충남대 기숙사는 입사 첫날 방이 너무 추워 주변 마트의 방한용품이 동남 정도로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기숙사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전기장판, 이불, 핫팩 등을 따로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 시험당일

시험 당일 날에는 긴장감 때문에 평소에 안하던 실수를 하게 되는 동기들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평소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긴장 탓에 목이 타 물을 자주 마셨는데 시험 도중에 화장실에 가고 싶어 곤란을 겪었습니다. 시험 날 아침에는 될 수 있는 한 식사를 가볍게라도 꼭 하시되, 수분 섭취는 가능한 줄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신분증, 수험표, 시계, 컴퓨터용 펜, 수정테이프 등은 미리 챙겨두시고 일체형 책상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등받이 쿠션 등을 준비해두시면 훨씬 편하게 시험을 치실 수 있습니다.

시험 당일 점심은 동아대의 경우 도시락을 주문해서 먹었는데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동기들이 입맛이 별로 없어 차라리 죽을 주문해서 먹으면서 더 좋았을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평소 자신의 식습관에 따라 식사를 준비하시되 평소보다 소화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시험을 마치고

가. 모의고사를 항상 실전처럼 준비하고 마음가짐 역시 임해야 합니다.

변호사 시험을 실전처럼 연습할 수 있는 기회는 3번의 모의고사 뿐입니다. 그러나 졸업시험에 미리 통과하였다는 이유로 혹은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로 모의고사를 치루지 않는 동기들이 있습니다. 점수의 문제를 떠나 5일 동안 그 과정을 한 번 겪어보고 내가 어떤 실수를 하는지를 미리 알아둘 수 있고,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에도 어떻게든 답을 구성하고 채워 넣는 연습 역시 모의고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점에서 3번의 모의고사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기출문제(모의고사, 변호사시험)를 여러 번 반복하셔야 합니다.


저 역시도 1,2학년 때는 기본서를 위주로 공부하느라 기본이론을 다 습득한 후에 문제는 나중에 풀어보겠다고 생각하며 기출

문제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기출문제에서 어느 부분이 반복 출제되었는지를 미리 확인하고 기본서를 읽어나간다면 강약을 조절할 수 있어 훨씬 도움이 많이 되고, 실제로 이미 기출됐던 문제의 쟁점 위주로 변호사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점에서도 기출문제를 여러 번 반복하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다. 시험 직전 일주일에 볼 수 있는 나만의 교재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공부하셔야 합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동기들이 기본서를 보다가 그 양에 치어 3학년이 되면 점점 더 얇은 책으로 책을 바꿔나가면서 한편으로는 이것으로 대비가 될까라는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책을 보는 것과 상관없이 두꺼운 기본서라도 시험 직전 일주일에 내가 한 번을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놓으면 합격할 수 있는 것이고 아무리 얇은 책이라도 시험 직전 일주일에 내가 그 책을 보지 못하면 시험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시험 직전 일주일에 다 볼 수 있는 나만의 교재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두꺼운 책에는 나중에 볼 부분만 표시를 하시고 얇은 책에는 없는 내용을 덧붙여 나가시면서 공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6. 마치며

결국은 시험장에서의 마지막 5일을 위해 3년을 달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시험장에서의 마지막 5일을 생각하시면서 공부도 체력도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를린 훔볼트대학교, 교환학생을 가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명예기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기 남기엽



66
스페셜리스트보다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제네럴리스트도 존재하며, 사회의 모든 시스템은 결국
제네럴리스트가 움직인다고 나는 믿는다. 99

#1

법전원(법학전문대학원)을 왜 다니는가. 어느 교수가 지원자들의 자기소개서를 검토한 뒤 한 말에 따르면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쫓겨는 승고한 이유가 과반이라 한다. 실상은 알 수 없지만 사실 이유는 다양할 것이다. 전술한 이유와 더불어 '변호사가 되어 다양한 시각을 갖추고 싶어서' 일 수도 있고 '판사가 품나보여서'일 수도 있다. 나는, 기존에 갖고 있던 언론인의 관점에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더 추가하고 싶은 경우였다. 보통은 축적된 개인의 경험과 터득한 철학으로 사안을 조망할 터인데 여기에 법이라는 관점을 추가하는 것만으로 훨씬 더 현실적이고 객관화된 프레임을 가질 수 있을 것이었다.

#2

법을 공부해 법을 다루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 이 곳 법전원에 모인 우리이지만 저마다 인생의 결과 쌓아온 지식은 다르다. 누군가는 '무엇'이 되고 싶어 왔고 누군가는 '무엇'을 하고 싶어왔다. 나는 법전원 진학 동기가 일반적이진 않았기에 방학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조금 달랐다. 사실 '법 실력'을 생각하면 방학 내내 하루 18시간을 공부해도 부족했을 테지만 그것은 잠시 잊고 새로운 동기부여를 받고 싶었다. 그렇게 고민하며 답을 내린 것이 '교환학생'이었다. 방학기간 동안 해외 유수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법전원생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 짜릿한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동시에 이번 기회에 그간 안 썼던 영어도 좀 써 보고, 오랜만에 해외 생활도 해 볼 심산이었다.

#3

당장 우리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찾아보았다. 아쉽게도, 학부에 비해 턱없이 부실했다. 대상학교도

몇 안 되었을 뿐더러, 그 중에 관심가는 프로그램을 갖춘 학교가 보이지 않았다. 법전원 자체가 역사가 짧다 보니 아직 충분한 교류네트워크가 만들어지지 않은 탓도 있을 것이었고 법전원 특성상 방학 때 교과서 읽기도 바쁘니 관심도 덜했을 것이었다. 하지만 그런 만큼, 오히려 기회는 많을 것이라 믿었다. 학부 때 버릇을 죽이지 못하고 결국 무모한 길을 걷기로 했다. 우선 첫째, 가고 싶은 학교에 지원을 해보고 둘째, 합격을 할 경우 지원금 및 학점인정을 위해 교수님에게 말씀드려 사후승인을 받기로 마음을 정했다. 리스크가 있는 작업이었지만 그 정도는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4

먼저 가고 싶은 나라를 정해야 했다. 미국은 학부 때 가보았기에 유럽으로 눈을 돌렸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이 역시 독일이었다. 우리나라가 따르고 있는 법체계인 대륙법계의 대표주자가 독일인 이유도 있었고 독일은 거의 모든 학교가 국비로 운영되기에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것도 이유였다. 우선 구글링을 하여 'llm-guide.com', 'lawstudies.com' 등의 사이트를 통해 독일의 주요 법전원 리스트를 뽑았다. 그리고 각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Summer Program'이 없는 학교를 지웠고 또 개인적으로 관심이 없는 주제를 다루는 학교(ex. 독일의 법제사)도 삭제했다.

그리고 각 학교에 대한 명성, 프로그램의 역사 등을 고려해 10여개 학교를 추렸고 이 모든 학교에 이력서와 여학생성증명서, 경력증명서를 만들어 보냈다. 이 중 6곳으로부터 답신이 왔고 지원기간이 만료된 2곳을 제외한 하이델베르크대학교, 베를린자유대학 등 4곳으로부터 답장을 받았다. 어떤 곳은 전화인터뷰를 요구했고 또 어떤 곳은 추가서류를 보내올 것을 요구했다.

#5

이 때가 기말시험 기간이라 정신이 없었기에 1곳만 선택해 집중하기로 했다. 내가 선택한 곳은 베를린 훔볼트대학교였는데 1810년 베를린 대학교(Universität zu Berlin)로 창립되었으며 학사과정 운영방식, 커리큘럼 설계 등에 있어 유럽 대학들의 롤모델과도 같은 역할을 했던 곳이다. 칼 맑스와 막스 플랑크, 엥겔스 등 많은 유명동문을 배출했고 헤겔, 피히테, 아인슈타인 등 많은 지식인들이 이 곳 강단에 섰다.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1. 학비가 독일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저렴했다는 점과 2. 이 학교에서 운영하는 'international A.D.R(대체적 분쟁해결) Summer Program'이 우리나라 정부부처도 관심을 갖고 연구한 바 있는 촉망받는 프로그램이라는 점 때문이었다.



필자가 수학했던 베를린 훔볼트대학교의 전경. 가운데 동상이 바로 이 대학의 설립자이자 전 교육부 장관 빌헬름 폰 훔볼트이다.



'Group Discussion'을 야외에서 여유롭게 수행중인 세계 각국의 법전원 학생들. 워낙 자기주장들이 강하다 보니, 과열된 테이블이 반드시 한 곳 이상은 있었다.



베를린 훔볼트대학교 법전원(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 law)의 강의실. 많을 때면 무려 500여명이 한 강의실에서 듣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6

답장을 받고 요구받은 추가서류를 내고 결과를 기다렸다. 거의 받아주겠다는 뉘앙스의 답장이었기에 학교 교수님께도 해당 프로그램의 연혁과 취지를 말씀드리고 요청 드리자 흔쾌히 허락해주셨다. 그런데 말이다. 당신이 만약 유럽의 기관에 무언가 일처리를 부탁해야 한다면 큰 기대는 접는 게 좋다. 상당히 느리다. 당장 답변을 줄 것처럼 했으나 1주, 2주가 기다려도 답이 오지 않았다.

전화를 자주 넣으면 독촉하는 모양새가 되어 행여나 안 좋은 이미지로 보일까봐 속으로 앓았다. 급기야 프로그램이 시작하는 달인 7월이 되자 마음이 달아올랐다. 가만있을 수 없었기에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장, 부학장, 변호사시험지도교수에게 전화를 했고 메일을 보냈다. 결국 3주가 지나서야 담당 교수에게 문제가 없다는 전화를 받았고 그때서야 한시름 덜 수 있었다.

#7

교환학생을 간다면 가장 걱정되는 것이 '살 곳'인데 해당 프로그램에선 기숙사를 제공하지 않았다. 대신 미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로 구성된 페이스북 그룹에 초대를 해주었고 거기서 학생들끼리 쪽지를 보내 함께 렌트를 했다. 각자 방이 있고 거실도 있는 아파트를 기준으로대략 3주 · 40만원 정도 했던 것 같다. 프로그램의 주제인 'A.D.R'은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약자인데 직역하면 '대체적 분쟁 해결'이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재판 이외의 다른 해결방법'이다. 흔히 갈등이 극에 달하면 주먹 아니면 법으로 해결하는 게 우리네 인생사인데 재판 역시 치고받지만 않았지 서로 헐뜯고 비난하며 감정상하는 건 매한가지이므로 좀 더 평화적으로 양당사자 모두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 좀 하자는 것이다.

#8

'A.D.R'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큰 줄기를 3가지 꼽으면 '협상', '조정', '중재'가 있다. 협상은 너와 내가 직접 타협점을 찾아가는 것이라 실상 이루어지기 힘들다. 상대방의 재판이 "내가 손해 보더라도 저 놈 잘 되는 꼴은 못 보겠다"식의 억하심정이 개입되는 점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렇다. '조정'은 중립적인 제3자를 정하고 그에게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게 하는 것이다. 제시에 그칠 뿐이므로 강제력은 없다. 이와 달리 중재는 여기에 강제력을 부여한다. 일종의 사적(私的) 재판이라 볼 수 있는데 판결과 비슷한 결정을 내리지만 법적용과 해석에 근거한다기보다 자신의 전문성과 양심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 소송판결과 구별되는 지점이다.

#9

가령, 한국 기업과 브라질 기업이 긴밀한 관계를 맺어오며 거래를 하다 법적 분쟁상황을 맞이했다고 가정해보자. 두 기업 모두 자국 관할 하에 싸우는 것이 유리하므로 국가 간의 관할권에 쟁점이 생기고 서로 법체계가 다르기에 당연히 갈등이 발생한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도 3십까지 가면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하는데 이 경우는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게다가 소송과정에서 각 기업의 '영업 비밀'이 유출되기 쉽다. 여기서 중재의 역할이 요구된다. 미리 양측이 합의한 중재자가 결정을 내리므로 관할 문제가 없고 단심제로 신속하게 진행되며 공개 재판이 아니기에 비밀 유지가 된다는 매력이 있다.

#10

그리하여 ADR 제도는 미국을 필두로 세계에서 활성화되는 추세이며 유럽 국가들 역시 공인된(Authorized) 조정자 · 중재자 양성에 적극적이다. EU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저마다의 법은 다르고 그만큼 재판 외의 분쟁해결 필요성이 높다. 본 프로그램에 미국 · 유럽 학생이 많았던 이유다. 한편 우리나라의 A.D.R 현황은 용어도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고 본격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국민이 분쟁해결절차에 접근하기 위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고, 분쟁해결에 있어 당사자의 절차적 만족도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관심이 요구되긴 하는데 이 글은 교환학생에 초점을 맞춘 글이므로 이쯤에서 관심을 접도록 하자.

#11

프로그램은 약 2~3주에 걸쳐 진행되며 수업 이외에 네트워킹도 중시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전통적인 목적이어서 방과 후 활동(Extra Activity)이 매일 예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수업이 끝나면 저녁에 방과 후 활동이 구성돼 있는데 화요일은 비치발리볼, 수요일은 카누, 목요일은 살사댄스, 금요일은 클럽 이런 식이다. 그러므로 굳이 내가 뭘 하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서로를 알게 되고 친해질 수밖에 없다.

#12

수업은 오전의 경우 1주차엔 '협상(Negotiation)', 2주차엔 '조정(Mediation)'을 배우고 오후에는 '중재(Arbitration)'를 배우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방적인 강의인 'Lecture'가 있고 토론을 하는 'Debate' 방식이 있는데 후자의 경우가 더 많다. 협상(Negotiation)을 배울 땐 학생들을 2그룹으로 나눠 각각 다른 Role을 준 후 협상에 임하게 한다.

예를 들면 내가 말을 구매해야 하는 마주의 '대리인' 역할을 맡았다면 저 쪽은 말을 파는 '판매상' 역할을 맡아 가격협상을 한다. 말의 경주기록, 기대되는 예상수익 등의 자료를 갖고 생판 처음 보는 사람과 협상에 들어간다. 나의 경우 중동에서 온 왕자와 협상을 했는데 이게 뭐라고 정말 끝까지 피를 말리는 협상을 벌이며 1달러라도 서로 깔고 올리려고 줄다리기를 했다. 실제 다이아수저도 협상에 한 번 입하니 도무지 통 큰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분배적인 협상은 경쟁을 지향할 수밖에 없다는 경구¹⁾가 생각났다. 협상을 한 뒤엔 수업에 참여한 인원 모두가 각자 협상금액을 발표하며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가능해보고 평가해볼 기회를 갖는다. 협상에 실패해서 구매 자체가 성사가 되지 않으면 꼴찌가 된다. 무작정 서로의 의견만 관철해선 안 되는 이유다.



밥은 학교 안에 있는 식당 'MENSA', 혹은 인근 식당에서 사 먹는다. 학교 안 식당은 골라먹는 뷔페 시스템이며 학생에게는 매우 싼 가격에 제공된다(한 끼당 평균 3유로). 인근 식당은 좀 더 비싸다.



방과후 활동(Extra Activity)으로 계획된 축구를 즐기고 나서 찍은 사진. 가운데 흰 옷이 필자이다.

#13

‘조정’ 수업 역시 실제 케이스를 다루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번엔 3그룹으로 나눠 대립되는 양당사자를 세우고 나머지 한 그룹이 ‘조정자(Mediator)’ 역할을 맡는다. 각 역할은 번갈아가며 맡게 되는데 내가 조정자 역할을 맡았을 때 어려운 점은 2가지였다. 첫째, 역시 영어가 문제였다. 회사 다닐 때에 영어를 쓸 기회가 좀 있어 1:1대화나 일방 강의를 알아듣는 일은 문제가 없었는데 현지인들끼리 1:1로 서로 흥분해 온갖 법률용어를 써가며 Role에 몰입한 대화는 온전히 이해하기 쉽지 않았다. 게다가 조금씩 양당사자가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그런 기술적인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발휘하기 위해서라도 역시 조 기영어교육은 필수인 듯싶다. 둘째, 조정자는 말 그대로 ‘조정’해야 하는데 자꾸 그들을 ‘심판’하고 ‘결정’ 내려주려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 그럴 때마다 교수님은 바로 옆에서 즉각 피드백을 주시며 온전히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주셨다. 나를 비판하는 사람보다 충고하는 사람이 때로는 더 미운 법이다.

#14

프로그램 참가자는 대부분 유럽, 미국, 호주 사람들이었으며 아시아인은 나 혼자였다. 그 혼한 중국인도 없었다. 슬로베니아 대법원, 이탈리아 검찰에서 온 이들을 비롯해 칠레, 보스니아, 마케도니아 등 여러 나라의 변호사·법전원생들이 있었다. 특히 정치에 꿈을 품고 오스트레일리아의 법전원을 다니면서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 탓에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는 파푸아뉴기니의 여학생도 있었다. 저마다 국적이 달랐지만 ‘법’이라는 쉽지 않은 학문을 공부하는 이들의 애환은 모두가 공유하는 지점이다. 하루 14시간씩 공부하는 것도 부족하데 도서관에 에어컨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다는 이탈리아 친구의 이야기와, 방과 후 활동조차 참여하지 않고 수업시간 외에는 무조건 도서관에 틀어박혀 있던 독일 친구까지 참 많은 자극이(...) 되었다. 슬로바키아에서는 ‘Lawyer’가 되어도 법정에 설 수 있는 ‘Attorney’가 되기 위해선 5년의 수습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도 흥미로웠고 내가 다녔던 베를린훔볼트대학교 법전원은 전 수업이 거의 출석체크를 하지 않는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었다.

#15

종교인 제럴드 키는 우주에 다녀온 뒤 자신의 신앙이 깊어졌다기보다, 넓어졌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근본주의자였던 그의 입장을 철회하기에 이른다. 현행 법전원 시스템은 3년 안에 모든 법의 깊이 있는 음미는커녕 표면적인 이해조차 제대로 하기도 바쁜 구성이기 때문에 여유가 없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뭔가 새로운 자극을 받고 잠깐 ‘재판’을 벗어나 관점의 지형을 넓히고 싶다면 교환학생은 당신에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이다. 법학이 깊어지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넓어질 가능성은 충분하다.²⁾ 현실적으로도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점을 인정해주고 일정정도의 지원도 해주기에 실로 매력적이다.

#16

한때, 지금이야말로 스페셜리스트의 시대라고 하여 모두 스페셜리스트를 동경하면서 “제네럴리스트는 모든 분야에 사용할 수 있어도 큰 도움은 되지 않는 대중적인 지적 노동자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견해가 유행처럼 번졌다. 하지만 그것은 낮은 수준의 제네럴리스트를 가리키는 표현일 뿐이다.³⁾ 스페셜리스트보다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제네럴리스트도 존재하며, 사회의 모든 시스템은 결국 제네럴리스트가 움직인다

고 나는 믿는다. 분명, “법학도 하기 바쁜 시간에 다른 과외활동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며 “그런 관대함을 베풀 시간이 있다면 차라리 민법주해를 읽어 내겠다”는 의견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지금이야 과도기이기에 이런저런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앞으로 교환학생 뿐 아니라 법학과 별 연관이 없다고 생각되는 언론사 인턴, 여론조사기관의 인턴, 컨설팅회사의 인턴도 충분히 ‘실무수습’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실제 법조인으로서 균형 잡힌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17

마지막으로 'A.D.R'에 대하여 한 마디 하고 끝을 맺고자 한다. 우리는 어려서 부터 부모님에게, 학교의 선생님에게 “한 쪽으로 치우치지 마라”, “항상 중용을 취하라”고 교육받는다. 그러나 그 잘난 중용, 균형이란 것을 잘못 취하다 보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라’고 주의 받던 바로 그 극단에 가 있는 수가 있다. 10의 중간은 5의 언저리이고 1000의 중간은 500의 언저리이겠지만 이런 ‘기계적 중립’에 대한 천착이 그 사람을 시대착오적인 위치로 만드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았다. 그런데, 튀어나온 못, 극단에 서 있는 인물이 되고 싶은 이가 어디 있겠는가? 난 언제나 사안을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조망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중용의 사람’이고 싶을 뿐이다. 그리고 그러한 ‘중용’, ‘중립’에 대한 집착은 나의 무지를 드러나지 않게 할뿐더러 때로는 원만한 인격의 소유자로 만들기까지 한다. 그러나 중용의 본질은 기계적 균형이 아니라 칼끝 위의 균형이다.³⁾ 지금처럼 ‘중용의 재판’, ‘중립적인 재판’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질수록 ‘A.D.R’의 역할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법전원을 통해서 좁은 법률 시장에 배출되는 변호사들이 이런 새로운 시장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창**



교내 도서관에 있는 컴퓨터실. 교환학생에게도 ID가 발급되므로 가서 여유있게 사용하면 된다.



베를린훔볼트대학교 법전원 (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 law) 전경

1) 김영욱, <갈등 해소와 대체적 분쟁 해결>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 다치바나 다카시, <도쿄대생은 바보가 되었는가> - 청어람 미디어
3) 장정일, <공부> 중 서문 - RHK

한 겨울의 우리를 기억하며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기 김상욱



66

우리가 잊지 않으면 잊혀지는 것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바꾸어왔고,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

99

겨울 방학을 앞두고 기말 시험 준비가 한창이던 12월 초, 우리 모두는 각자 나름대로의 겨울 방학 계획들을 그리고 있었다.

어떤 이는 학기 중 소원했던 사람들과 보낼 따뜻한 연말을 그리거나, 미루어두었던 여행을 계획하며 재충전의 꿈도 꾸었다. 또 어떤 이는 관심 있던 분야의 사회활동이나, 본인의 목표에 가까워지기 위한 각종 실무 수습을 준비하기도 했다. 변호사 시험을 앞둔 졸업반은 높아진 합격의 턱을 넘기 위해, 그리고 대부분은 학기 중 부족했던 부분을 보충하려 체계적인 학습계획을 세워두었다.

그렇게 그려놓았던 계획들을 포기하고 우리는 교실과 열람실을 박차고 거리로 나섰다.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대부분이 학사를 거부하고 운집했던 과천에서의 집회를 시작으로 우리는 스스로가 '금수저'가 아님을 증명해야 했다. 전국의 학생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나름의 싸움을 시작했다. 1인 시위, 전단지 배포, 서명운동, SNS 활동, 그리고 무기한 단식 투쟁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로스쿨을 향한 왜곡된 시선에 맞서려 노력했다. 그러한 노력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단식 중이던 노형은 원우에 대한 응원과 법무부에 대한 항의, 대국민 선전활동,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모두를 위한 응원의 목적으로 기획된

“사법개혁을 향한 한걸음, 로스쿨 릴레이 도보 대장정”이었다.

동아대, 부산대의 출정으로 부산에서 출발한 대장정의 깃발은 호남권, 영남권의 원우들에게서 충남권의 원우들에게 전달되었고, 그 깃발이 다시 수도권의 원우들의 손으로 옮겨졌다. 초기에 불과 5~6개에 불과하던 참가대학원은 19개 대학원으로 늘어났고, 직접 참여인원만 201명에 달하는 대규모의 행사가 되었다. 그 사이 교수협회의 변호사 시험 출제 거부 철회 및 협의체 수용 의사 등이 발표되었고, 학생협회의 변호사 시험 거부 철회, 학사 거부 연대 해제 등 수많은 외부적 변화가 있었지만 참가자들의 뜻은 확고했다. 발걸음은 가볍게, 목표는 뚜렷하게. 한 걸음 더 나아가자는 것이었다.

도보릴레이를 하며 놀랐던 점 중 하나가 우리를 향한 여론이 결코 '진실한 여론'이 아니었다는 점이었다. 거리에서, 도로에서 만난 국민들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사법시험의 진실을 알지 못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입시제도와 교육이 정말로 불합리한지, 사법시험을 통한 인재선발 방식이 미래의 법률시장을 위하여도 적합한 방식인지 등에 대한 성찰이 실종된, 감정적 생각들이 대부분이었다.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측에서 만들어낸 금수

저, 음서제 프레임과 오랜 기간 우리 사회의 인재 선발 기준이었던 '줄 세우기' 신화에 의하여 만들어진 여론일 뿐이다. 그리고 국회로 사시존치의 논의가 옮겨간 이상 우리가 할 일은 여론이 진실을 반영하게 하는 것이었다.

2016년 1월 4일 변호사 시험 당일, 참가자들은 과천에 집결했고, 전남대학교 황진영 원우는 여의도로 향할 것을 제안했다. 사법시험 존폐를 논의할 협의체가 구성되는 것이 확실한 이상 국회에 사법개혁을 향한 우리의 의지를 전달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공감대 속에 당초 계획과는 달리 여의도까지의 한걸음이 이어졌다. 국회에 도착한 후 이상민 법제사법 위원장에게 우리의 염원을 담은 종이학, 경북대학교 친구들이 수집한 3500여 대구 시민들의 로스쿨지지 서명, 직접 작성한 호소문과 우리의 활동 내용 등을 전달했다. 이후 기자회견문 발표를 끝으로 19일간의 우리의 여정은 막을 내렸다. 그리고 학교로 돌아왔다.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시험을 앞두고 큰 혼란을 겪었던 졸업반 선배들 대부분이 변호사 시험에 임했으며, 수강생의 99%가 응시를 거부했던 검찰 실무 시험도 '추가' 시험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학기가 끝나고 어떤 사람들은 부족한 공부를 보충하기 위해 다시 열람실을 찾았고, 어떤 사람들은 실무 수습을, 또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떠났다. 나는 학기가 끝나고 열람실에 있기를 택했다. 그렇게 겨울이 지나가고 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혹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고 싶지 않다는 듯이. 많은 원우들이 지난 겨울 우리의 연대와 활동을 패배로 규정하는 것 같다. 많은 것을 포기하고 단체 활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고,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가져갔다는 평가도 있었다. 때문에 이후의 과정에서 어떤 활동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대다수 원우들이 열정적으로 목소리를 높였지만, 팔목할 만한 성과를 손에 쥐지 못하였다는 패배감을 가지고 있는 듯도 하다. 그러나 이제 막 5회째 졸업생을 배출한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하여 이미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시작되었다. 무변촌이던 경상북도 경산(영남대 소재지)은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변호사로 인하여 법률 서비스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났고, 법률가들은 더 이상 송무시장에 안주하지 않는다. 사

시즌치 측에서 이제 더는 무턱대고 금수저, 음서제를 들먹이지 못한다. 언론 역시 당초의 편향된 시선에서 이제는 균형을 갖춰 양 제도의 장단을 논하기 시작했다.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지만 어쨌든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이 온 것이고, 이것은 우리 모두의 노력에 의한 것이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이번 겨울에 크고 작은 승리의 기억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사법개혁을 향한 연대의 릴레이는 계속되어야 한다. 일련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왜곡된 시선에 맞서 진실을 알리는 작업이 얼마나 고된 작업인지를 직접 경험했다. 누구도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지 않았고, 로스쿨에 재학 중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험을 했다. 이러한 경험은 미래에 우리가 법률가가 되었을 때, 약자의 편에서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편견 없이 의뢰인을 마주할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이번 겨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해야 하며, 기억해내야만 한다.

우리는 그동안 법을 신뢰해왔다. 열심히 학업에 매달리다 보면 우리의 진실이 알려질 것이라는 순진한 속에 살았다. 그런 우직함이, 그런 순수함이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악랄한 비난과 왜곡된 시선에 맞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침묵에서 벗어나 우리가 우리를 바로 알리는 데 나서야 한다. 우리가 결코 법률전문가가 옹으로 군림하던 구시대의 들러리가 아니며, 소수자와 약자들 곁에서, 국민의 곁에서 그리고 정의와 공익의 편에서 사법개혁과 법률서비스의 대중화를 이끌 새 시대의 주역임을 스스로 알려야 한다. 가정형편이 어렵다거나,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법률가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친구들이 형편을 걱정할 필요없이 법률가의 꿈을 꿀 수 있는 사회, 개천에서도 변호사가 나올 수 있는 사회, 바로 로스쿨의 도입으로 열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야 한다.

우리가 잊지 않으면 잊혀지는 것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바꾸어왔고,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 장기적 대응이 시작된 만큼 세 번째, 네 번째 걸음을 위한 연대의 릴레이가 계속되기를 기대해본다. **창**

카뎬의 이방인

_ 박상흠 변호사

‘오늘’ 엄마가 죽었다. 엄마의 나이도 모른다. 입원 후 단 한 번도 요양원을 찾아가지 않았다. 관에 흠이 덮이는 순간에도 뢰르소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양로원 원장과 관리인 등이 들려주는 위로의 말은 그에게 들리지 않는다. 무덤 앞에서 묵도도 없이 떠난다. 장례식장을 벗어난 주인공은 연인 마리와 함께 해수욕장에 가 즐겁게 물속에서 놀다가 영화구경을 하고 집에 돌아와 둘은 함께 살을 섞는다. 그리고 그와 늘 함께하는 일상 친구는 커피와 담배.

뢰르소는 여친에게 속은 레이몽을 위해 경찰서에 출석하여 그를 변호해준다. 그와 친구가 된 뢰르소는 마리와 함께 해안가의 별장으로 간다. 칼을 들고 그들에게 다가오는 아랍인들에게 총을 겨누는 레이몽을 말한다. 그러나 다시 다가오는 아랍인들에게 다친 레이몽.

별장을 멀리하고 홀로 파도가 덮치는 바위틈 사이에 누워있는 주인공에게 아랍인이 다가온다. 작렬하는 태양빛 아래 같이 번쩍인다. 그리고 주머니 속에 숨겨진 친구에게서 빼앗은 총을 꺼내 순식간에 방아쇠를 당긴다. 한발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한발 모두 5발의 총알이 주인공을 향해 칼을 겨누 이에게 날아 간다. 총성은 해변가 침묵의 깨뜨림이며 네 번의 짧은 노크소리와 같다.

“바로 그때 모든 것이 흔들렸다. 바다가 깊고 뜨거운 숨을 토해냈다. 하늘 전체가 활짝 열려서 불을 비오듯 쏟아놓는 것 같만 같았다. 내 온 몸이 긴장했고, 손으로 권총을 힘 있게 쥐었다. 방아쇠가 당겨졌고, 나는 권총 자루의 매끈한 배를 만졌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건조하면서도 귀를 찢는 듯한 그 소리 속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나는 땀과 태양을 흔들었다. 나는 내가 낮의 균형을, 내가 행복을 느끼고 있던 해변의 이례적인 침묵을 깨뜨렸던것을 깨달았다. 그러자 나는 움직이지 않는 그 몸에 다가 다시 네 발을 쓰았고, 총알들은 깊이, 보이지도 않게 틀어박혔다. 그것은 마치 내가 불행의 문을 두드리는 네 번의 짧은 노크 소리와도 같았다.”

아랍인을 권총으로 살해한 죄로 기소된 뢰르소. 결국 그는 재판정에 회부된다. 예심판사 앞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진다. 국선변호인이 선정여부에 대한 판사의 질문에 반드시 필요하냐는 주인공의 되물음에 판사는 법이 모든 것을 정했다고 화답한다. “내가 알고 싶은 것은 당신입니다.”라는 판사는 자신의 서랍 속 은제십자가상을 꺼내 흔들며

신을 믿지 않는 삶은 무기력하며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한다며 신을 믿느냐고 물음에 그렇지 않다고 답하는 주인공. 두 번째 심문부터 예심판사는 피고인을 반기독자 양반으로 부른다.

그리고 그를 돕기 위해 나타난 변호사. “그는 그날 내가 슬펐는지 여부를 물었다. 그러나 나는 자문해보는 습관을 좀 잃어버려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고 대답했다.... 엄마의 장례를 치르는 날, 나는 너무 피곤했고, 그래서 졸음이 왔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알 수가 없다....” 솔직하게 답하는 뢰르소에게 변호인은 피고인의 태도를 수정하라고 다그친다. 지나치게 솔직한 표현보다는 법정의 언어가 필요한 것이다. 변호사는 어머니 장례식날 무덤덤한 주인공의 모습이 불만스럽다.

이제 중죄 재판소의 재판정이다. 예심판사와 변호사로부터 그의 인간성을 재단(裁斷)받은 경험을 한 주인공. 재판무대에 등장한 재판장과 판사들, 검사들, 배심원들, 기자, 방청객들 앞에서 공개재판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주인공이 어떤 인간인지에 대한 심판이 진행된다. 증인으로 출석한 셀레스트, 마리, 레이몽, 마송. 주인공의 살인사건은 불운이라는 셀레스트. 뢰르소의 연인 마리는 검사의 강요에 못 이겨 장례식 이후 주인공과 관계를 맺은 그날 하루를 요약한다. 검사는 외친다.

“배심원 여러분, 자기 어머니가 사망한 바로 그 다음 날에 이 사람은 해수욕을 하고, 부정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으며, 희극 영화를 보러 가서 시시덕거린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마송과 살라마노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 증인들은 각자의 고유한 생각을 표현하고자 하지만 그 때마다 판사에게 저지당한다.

양로원 원장과 관리인은 장례식날 울지 않던 피고인의 모습에 놀랐다고 고백한다. 검사가 최종진술에서 지적하려는 바는 뢰르소의 비인간성과 비도덕성이며 검사는 “범죄자의 마음으로 자기의 어머니를 매장하였으므로, 나는 이 사람의 유죄를 주장하려는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검사의 눈에는 피고인은 살해 전에도 이미 살해범이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변호사의 최종진술. “내가 죽인 것은 사실입니다.” 주인공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게 된다. 의아해 하는 피고인에게 간수는 “변호사들은 다 그런다”고 덧붙인다. 법정엔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나’는 없고 ‘그’만 있을 뿐이며 변호인이 ‘나’가 되고 범조인들이 또다른 ‘나’가 된다. 주인공의 생각과 의견과 판단 그리고 의사는 철저히 배제된다.



저자소개
박상흠 변호사
동아대학교 법무팀장

동아대 로스쿨 재학시절 편집장을 맡은 일을 가장 보람 있게 생각한다. 술을 마시지 못하는 신체특성 때문에 변호사로서의 영업은 쟁쟁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글쓰는 일과 쉽게 설명하는 법률이야기를 일반인들에게 전해주는 일을 가장 적성에 맞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장차 나의 꿈은 법률이야기꾼이 되는 것이다.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해도, 자기에 대해 말하는 걸 듣는 것은 언제나 흥미 있는 일이다. 검사와 변호사 사이의 변론이 있는 동안 사람들은 내 이야기를 많이 했다. 아마 내 범죄에 대해서보다도 나에게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로서는 어딘가 좀 걸리는 일이 하나 있었다. 조심을 하기는 하면서도 때로는 나도 한마디 참견하고 싶었다.

그러면 변호사는 “가만히 있어요, 그래야 일이 잘됩니다.”라고 말했다. 이를 테면 사람들은 나를 빼놓은채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 같았다. 나의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은 채 나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었다. 때로는 나는 다른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로막고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 “그렇지만 누가 피고인입니까?” 피고인이라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내게도 할 말이 있습니다.”

11개월간 재판정에서 범죄가 아닌 범죄인의 심판을 통해 인격살해를 겪은 주인공의 푸념이며 독백이다. 법조인의 관심은 범죄 자체가 아닌 범죄인이었으며 법정에서는 철저히 법조인의 언어만 통용될 수 있을 뿐 범죄인의 언어는 허용되지 않는다. 법정의 언어는 법조인의 언어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피고인도 증인도 배심원도 모두다 법조인의 언어로 말해야 하고 들어야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법조인을 통해서만 말하고 들어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법조인의, 법조인을 위한, 법조인에 의한 법정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주인공이 범죄인인가. 뫼르소가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유죄가 아니라 이미 살인을 저지를 자질과 성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유죄인 것이다. 롬브로조의 말대로 범죄인은 유전적으로 기형적인 두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처럼 범죄자가 되는 것은 선천적이며 태생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다.

예심부터 재판의 중심부에 이르기 까지 중요한 문제는 장례식장에서 울지 않고 그 다음 날 여자를 뜨겁게 사랑한 뫼르소의 모습에 대한 해부였다. 뫼르소의 살인은 모친을 향한 애정결핍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며 본성적으로 범죄인의 자질을 가진 것이었으며 신에 대한 믿음과 회개에 대한 무지에서 시작되는 것이었다.

주인공이 살인한 것은 그의 모친인가, 아랍인가. 주인공이 총으로 겨누는 것은 아랍인이 뺨은 칼에서 반사된 빛이었다. 해변가 별장으로 그를 인도한 레이몽은 주인공을 위해 어떤 방어도 해 줄 수 없었던 것일까. 법정에 살인된 아랍인의 친구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것은 신기한 일이다.

주인공은 법정의 이방인이었으며 현실세계의 이방인이었으며 기독교 세계의 이방인이었다. 오늘 무엇이 현대인들을 이방인으로 만드는 것일까. 주인공은 자신이 없는 재판에서 소외된다. 살인죄로 기소된 범죄 사실이 아닌 범죄인에 대한 인격재판의 현장에 서있게 된다. 법정언어로 가득한 법조인들 앞에서 무기력한 주인공과 증인들의 모습은 국민들로부터 불신 받는 법조계의 현실을 반영하는 듯하다. 법조인의 역할이 법정언어의 통역가에 머물게 된다면 법조의 미래는 흑암의 세계에서 침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소설의 재판정은 한국 재판부의 현실을 보여 주는 것 같아 씁쓸함을 갖게 된다. 당사자들의 언어가 법정 언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말을 가로막고 억박지르는 법대. 인간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으로 한 인간을 단죄해버리는 재판은 오판을 부르게 만든다. 의뢰인의 호소를 요건사실의 체로 걸러낸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 부끄러움을 견딜 수 없다.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이방인으로 대우받는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에게 희망의 미래를 비추어 주는 빛이 되는 것 같아 위로를 얻게 된다. 의뢰인을 따뜻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친근하게 다가가게 된다면 로스쿨러들이 기득권 법조계에 이방인지지 머물지 몰라도 국민들에게는 이방인이 아닐게 분명하니까.

왜 아랍인을 죽였느냐는 질문에 주인공은 답한다. ‘태양’때문이라고. 사형언도와 함께 다시 수감된 주인공. 천정위로 비춰지는 태양이 고개를 쳐들고 그에게 다시 나타난다. 반복되는 일상이 그는 지겹지가 않다. 그의 머릿속엔 이제 죽음의 계단 단두대와 상소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시시 때때로 그의 내면 속에 속삭이는 엄마의 목소리. 처음이자 마지막 편지를 보낸 마리와 엄마의 죽음이 그의 마음을 방문한다. 단두대를 향하고 이방인은 사라진다.

소설에서 법이 이방인을 죽음으로 몰고 갔지만 정작 우리 현실세계에 필요한 것은 이방인의 탄생을 허용하는 법조 문화의 종말이 아닐까. **창**

강렬한 상류층의 허무

_ 마네, 발코니

이 작품을 보면 전체적으로 초록색과 검은색, 흰색이 강렬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프랑스의 인상주의 화가 에두아르 마네(Edouard Manet)의 작품 발코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랑스 오르세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죠. 인상주의 화가 마네는 색을 중시했고, 이 그림에서도 각각의 색마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록색은 그림의 제목이기도 한 발코니의 주색으로서 그림 속 장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검은색은 그림자를 표현하거나 후경에 깊이를 주는 데 사용되고 묘한 분위기를 내고 있습니다. 흰색은 특히 마네가 좋아한 색이었는데, 다른 그림에서도 많이 썼고 이 그림에서도 빛이 흰 옷에 떨어지는 인상을 잘 잡아냈습니다. 그 밖에도 남자가 매는 파란색 넥타이와 여성들의 흰옷, 그리고 바탕의 검은색의 대조적 구도는 당대에는 시도되지 않은 충격적인 표현이었다고 해요. 즉 기존의 고전주의 그림은 하나의 화폭 안에 하나의 빛과 그림자, 밝음과 어둠이 잘 조화되어 섞여있는데 마네는 빛은 전경에 그림자는 후경에만 몰려 있게 하여 빛과 그림자가 완전히 따로 분리되게 그린 것입니다. 이는 초록 덧문을 경계로 뒤는 그림자의 세계, 앞은 빛의 세계로 해석됩니다.

당대에 마네의 이 그림은 난간 뒤에 배치된 인물들은 간헐듯 보이는 데다 원근법 없이 배치되어 일종의 정물화 같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해요. 또한 인물의 얼굴보다 꽃을 더 공들여 그리는 등 인물과 사물 사이의 전통적인 위계도 무시되었고요. 꿈을 꾸는 듯 혼자만의 생각에 잠긴 여성의 발치에서 공을 가지고 혼자 노는 강아지는 얼어붙은 듯이 정지한 인물들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물들은 발코니에 함께 있기는 하지만, 각자 다른 곳을 보면서 감정의 교류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군요. 당시 이 그림을 처음 본 사람들을 어리둥절 했겠네요. 마네는 이런 심리적 거리감과 모호성을 현대 생활의 특징으로 보았고, 일부러

마주치지 않는 시선을 통한 심리 상태의 표현을 한 것입니다. 심지어 오른쪽 여인의 구두는 바닥에서 들려 땅에 닿을 듯 못하고 허공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등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이를 두고 당대 우아한 생활을 희극적으로 패러디하였으며 어두운 색조와 섬세한 연출의 대비로 부르주아 사회 분위기를 표현했다고 평가하죠. 이 사람들의 분산된 시선은 비가시성의 폭발이라고 푸코는 말했습니다.

마네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작품을 팔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넉넉했고, 유산이 많아 당대 화가들에 비해 좋은 조건에서 작업할 수 있었다고 해요. 어느날 마네는 산보하다가 발코니에 사람들이 나와 있는 걸 보고 착상하여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는 그림을 그릴 때 자신이 좋아하는 고양이의 <발코니의 마하들 Majas al Balcon>을 염두에 두고 재해석 한 것입니다. 다른 점이라면, 고양이의 작품에는 인물들의 시선이 묶여 있고 주제의 연결이 있지만, 마네의 그림은 모델들이 제 각각 포즈를 취한 것이란 점이 다릅니다. 발코니라는 작품은 1869년 살롱을 통해 소개되었고, 사람들은 그때 이미 마네의 회화 경향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마네의 그림으로 돌아가 볼까요? 세명의 사람이 보이는데 사실 네명입니다. 남자의 왼쪽에 어둠속에 한 인물의 얼굴이 더 보이네요. 이들은 마네와 절친한 예술가들로 가운데 남자는 풍경화가 '기유메(Jean Baptiste-Antoine Guillemet, 1843-1918)'이고, 오른쪽 여자는 마네의 아내이자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수잔 마네와 협연한 바 있고 수잔과 친구인 바이올리니스트 '파니 클라우스(Fanny Claus)', 그리고 왼쪽 여자는 마네가 사랑했으나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평생 사랑했다는 마네의 동생 외젠과 결혼한 화가 '베르트 모리조(Berthe Morisot, 1841-1895)'입니다. 그리고 뒤



그림출처

그림 <http://www.wga.hu/>
김광우 마네의 손과 모네의 눈(줄리아의 친절한 미술관) http://m.blog.naver.com/helmut_lang/150037364615
광우의 문화읽기 <http://blog.aladin.co.kr/797865117/4441873>
[네이버 지식백과] 발코니 - 에두아르 마네 (프랑스국립박물관연합(RMN), 지엔씨미디어)
예술의 향기 <https://story.kakao.com/ch/lovemusic/HKwxXGTyHZ0>
조양익 <https://www.facebook.com/notes/yangick-cho>
영국의 문화사랑 그리고마네의클라우스양의 초상화 http://www.facebook.com/note.php?saved&¬e_id=191067390934096, <http://algogaza.com/754/>,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2MVH&articleno=1078447&categoryId=0
스테파노 추파, 천년의 그림여행, 박정자, 마네 그림에서 찾은 13개의 퍼즐조각, 에어 프랑스 <http://afwebzine.tistory.com/160> <http://prologue.blog.naver.com/PostThumbnailView.nhn?blogId=millettert&logNo=39466768&categoryNo=0&parentCategoryNo=159>
명화 1001 <http://blog.daum.net/yonghwan6158/4165>



저자소개
김별다비 경감, 변호사, 큐레이터

변호사가 되기 전에는 미술을 전공하고 쇠대박물관 큐레이터, 아르코 미술관 큐레이터로 근무했다. 제2회 변호사 시험 합격 후 엘지전자 개인정보 compliance task에서 개인정보 보호업무로 3년여 근무하다 예술인의 정의 구현을 위해 수사에 뜻을 두고 2기 경감 특채로 선발됐다. 3회 대법원 가인법정변론대회에서 형사변론부문 전국우승을 한 바 있다. 대안공간 정다방, 리각 미술관,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미술법을 강의한 적이 있고, 월간 BizArt지와 한국박물관협회지에 미술법 칼럼을 쓰고 있다.



▲ 발코니의 마아들 / 원근법2: 마네의 발코니

의 왼쪽에 숨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남자는 전면에 있지 않아 잘 보이지 않지만 자세히 보면 물주전자를 들고 시종처럼 보입니다. 알려진 바로는 마네의 아들 ‘레옹(Leon Koella-Leenhoff)’이라고 합니다. 일설에 따르면 수잔은 사실 마네의 아버지의 정부이고, 아들 레옹은 수잔과 마네의 아버지와의 사이에서 가졌다는 말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공간이 마네와 관련이 있는 공간이란 것입니다. 기유메는 앞의 두 여성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이 의식에 참여한 사람처럼 엄숙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클라우스는 우산을 마치 악기처럼 들고 있습니다. 클라우스는 나중에 마네의 친구 화가 피에르 프린스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물인 왼쪽에 앉아 있는 모리조는 인상파 화가였던 마네의 동료입니다. 오늘의 그림 발코니에서도 마네는 누구보다도 모리조를 정성들여 그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그림에서 모리조는 발코니 가까이 앉아 오른팔을 발코니를 가로막는 창살 위에 얹은 채 무심히 앞을 바라보는데, 그녀의 커다란 눈과 강한 시선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모리조는 로코코 시대 화가인 장 오노레 프라고나르(Jean-Honoré Fragonard, 1732-1806)의 증손녀로 모리조의 아버지는 사법보좌관으로 많은 권력과 부를 가진 상류층으로 마네와 마찬가지로의 신분이었습니다. 모리조는 파리 살롱전에서 6번 연속으로 당선된 화려한 경력을 지닌 화가로 1874년부터는 인상주의 전시에 참여하여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두아르 마네의 동생 외젠 마네와 결혼하였습니다.

모리조는 코로의 제자로 마네와 르누아르의 영향을 깊게 받은 재능 있는 화가였습니다. 그녀는 인상파 중 가장 열성적으로 활동했고, 이러한 재능과 아름다움으로 마네를 빠져들게 했습니다. 모리조는 마네가 루브르에 갔을 때 지인 팡탱-라투르가 마네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마네는 이후로도 자주 모리조의 초상화를 11점이나 그렸습니다. 그럼에도 유부남인 마네는 모리조와 결혼을 하지 못했고 결국 동생과 결혼시켜 정신적으로 자주 가까이 하려 했다고 합니다. 외젠은 헌신적이고 가정적인 남자였고, 이 때문에 모리조는 말년에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기유메에 의하면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 마네는 포즈가 마음에 들 때까지 15차례 이상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는 모델을 각각 독립된 포즈로 습작한 후 캔버스에 구성했는데 클라우스는 사랑스러우면서도 희극적인 멍청이처럼, 기유메는 자신감이 넘치는 멋쟁이 신사로, 모리조는 체홉이나 입센의 연극 여주인공처럼 묘사하면서 각 모델의 얼굴을 무표정하게 묘사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무엇인가 말하려는 듯한 클라우스의 포즈는 어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살롱에 걸린 이 작품을 보고 모리조는 만족해하면서 언니 에드마에게 말했습니다.

“마네의 그림은 늘 야생 열매나 아직 덜 익은 과일 냄새를 풍기는데 난 그게 마음에 들어. ... 그림에서의 내 모습은 추하다기보다는 낯설어. 호기심 많은 관람자들은 내가 창녀라고 수군대는 것 같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발코니>는 고야의 <발코니의 마아들>에서 영감을 받아 그렸습니다. 비록 제목과 구도, 배치 등에서 고야의 영향을 받았으나 어떤 이야기나 일화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었고, 전통과 관습, 사실성을 벗어나 있었기에 당시 이 작품을 처음 본 관객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살롱에 출품되었을 때 많은 이가 이 작품을 이해하지 못했지요.

이후 1916년에 태어난 초현실주의자 마그리트는 마네의 작품을 재해석해 또 패러디를 합니다. 마그리트의 작품은 전통

▼ 올랭피아 / 우르비노의 비너스



▼ 메니프 / 거지철학자



◀ 파리의 심판 / 풀밭위의 점심



▲ 1808년 5월 3일 / 막시밀리옹 대공의 처형



◀ 다윗왕의 편지를 받은 밋세바 / 놀란 님프

회화에 대한 초현실주의의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마그리트도 과거의 걸작을 이용해 현실에 대한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는 작품 세계를 가지고 있지요. 마그리트는 비현실적인 마네의 발코니 작품의 인물들을 보고 관으로 표현했습니다. 마그리트는 마네의 그림에서 빛과 그림자의 경계 즉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읽어낸 것입니다. 마그리트는 마네에 그림에 등장한 네 명의 인물들을 목재 관으로 대체했으며, 관들은 원래 인물의 위치를 흉내내고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 무릎을 구부린 관, 서있는 세 개의 관. 사물을 의인화 하여 죽음과 관련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지난 번 정물화에서 소개해 드렸던 메멘토 모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네 역시 고야 뿐 아니라 전통 고전을 많이 패러디 했습니다. 유명한 <풀밭 위의 점심>은 라파엘로의 <파리의 심판>, <올랭피아> 역시 <우

르비노의 비너스>의 재해석이며, 벨라스케스 <메니프>의 재해석으로 <거지철학자>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램브란트의 <다윗왕의 편지를 받은 밋세바>의 영향을 받은 <놀란 님프>도 있죠.

왜 마네는 패러디, 재해석을 해 왔을까요? 마네는 자신만의 회화양식을 발견하기 위해 루브르를 자주 찾아 대가들(특히 스페인 고전) 화풍을 연구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양식은 대가들을 쫓았으나 소재는 현대인의 삶에서 찾았지요. 마네는 또 고야의 <1808년 5월 3일>이라는 작품도 재해석해 <막시밀리옹 대공의 처형>도 그렸죠. 르누아르는 마네의 막시밀리옹 대공의 처형을 보고 “이작품은 완전히 고야다. 그러나 마네는 마네가 아닌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창**

툭아보기

2014년 우리나라 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24만여 건으로 이는 5년 전보다 무려 17.1%나 오른 수치다. 또한 GHO(Global Health Observatory)가 조사한 '범죄 유형별 국가 순위'에 따르면 한국의 사기 범죄율은 세계 1위다. 경제가 계속 어려워지고 있어서일까. 사기 범죄는 갈수록 늘어만 간다. editor. 박소희

[어학사전] '툭아보기'는 '살살이 툭아가면서 살펴보다'라는 순 우리말로, 틈이 있는 곳마다 모조리 뒤지면서 찾는 것을 의미한다.



사기죄로 주인공을 고소해야 할 것만 같은 영화 & 책

사기꾼들의 천국

캐치 미 이프 유 캔 *Catch Me If You Can*

전학 첫날 선생님이로 위장, 1주일 동안 전교생을 골탕 먹인 당돌한 10대 프랭크(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부모의 이혼으로 무작정 가출한 프랭크는 본격적으로 남을 속이는 천재적 재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기자를 사칭해 항공사의 허점을 알아낸 프랭크, 그는 조종사로 위장, 모든 항공 노선에 무임승차는 물론 회사 수표를 위조해 전국 은행에서 140만 달러를 가로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FBI 최고 요원 칼 핸러티가(톰 행크스) 프랭크의 뒤를 쫓기 시작한다. 결국 프랭크는 21세에 체포돼 12년형을 선고 받는다. 하지만 5년 복역 후 나머지 기간은 FBI금융 사기부에서 근무하며, 사기 노하우를 역으로 활용했다.

[관전포인트] 이 어메이징한 사기극이 실화라니!
(미국 영화 / 2003.01.24 / 140분)

까마귀의 엄지 *カラスの親指*

젊은 시절 사채의 뒷에 걸려 가족을 잃은 공통점을 지닌 중년 남자 다케자와와 데쓰는 각자의 기술을 이용해 함께 사기를 치며 살아가고 있다. 여기에 역시 사채업자에 시달리다 엄마가 자살한 과거를 지닌 소매치기 소녀 마히로와 언니 야히로, 그리고 그녀의 애인 간타로까지 엮이면서 다섯 명의 죄중우들 동거가 시작된다. 어느새 가까워진 안락한 생활도 잠시, 다케자와를 쫓는 사채조직의 위협은 갈수록 심해진다. 그들은 뒷골목에서 쌓아온 노하우를 끌어 모아 공통의 적 사채업자에게 복수하기 위해 대규모 사기극 '앨버트로스 작전'을 계획한다.

[관전포인트] 인생은 실패했지만 이 작전만은 실패하지 않겠다!
서로 속고 속이는 프로 사기꾼들의 비루하고도 진솔한 인생살이.
(일본 소설 / 2011년 / 380P)



오션스 일레븐 *Ocean's Eleven*

뉴저지 교도소를 출감한지 불과 하루도 지나기 전, 대니 오션(조지 클루니)은 새로운 한탕을 계획하고 사상 최대 규모의 카지노호텔을 성사시키기 위해 각 방면의 전문가(?)들을 소집한다. 참모장 격인 카드의 달인 러스티(브래드 피트), 천재 소매치기 라이너스(맷 데이먼), 폭파 전문가 배셔(돈 치들), 중국인 곡예사 옌, 현역에서 은퇴했던 베테랑 사기꾼 사울 등, 이름 하여 오션스 일레븐! 그들의 범행 기본수칙은 세 가지다. 첫째, 인명을 해치지 말 것, 둘째, 무고한 사람의 금품을 털지 말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판사판의 정신으로 게임에 임할 것. 이 수칙을 바탕으로 1억 5천만 달러가 보관된 카지노 금고를 털 계획을 세운다.

[관전포인트] 조지 클루니, 맷 데이먼, 브래드 피트, 앤디 가르시아, 케이스 애플렉, 줄리아 로버츠 등등! 영화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당신의 인구는 호강할지이다.
(미국 영화 / 2002.03.01. / 116분)

라이어 게임 *Liar Game*

어느날 갑자기 배달된 소포. 거기에는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10만분의 1의 확률을 뚫고 라이어 게임에 참가등록 되셨습니다.' 라는 편지와 현금 1억 엔이 들어 있었다. 그것이 라이어 게임의 시작이었다. 30일 후 게임 종료일에 자신이 받은 1억 엔을 반환한다. 규칙은 그것뿐. 요령껏 대전 상대의 돈을 빼앗는데 성공하면 승자는 1억 엔을 갖고, 패자는 1억 엔의 빚을 지게 된다. 누구를 믿고, 누구를 믿지 말아야 할까.

[관전포인트] 거액의 돈 앞에서 흔들리는 인간심리를 파헤친 문제작. 훌륭한 원작 덕에 드라마, 예능프로그램으로도 제작됐다.
(일본 만화 / 2015.10.23.(완결) / 19권)



타짜 *The War Of Flower*

가구공장에서 일하며 남루한 삶을 사는 고니(조승우)는 대학보다 가난을 벗어나게 해줄 돈이 우선인 열혈 천방지축 청년! 어느 날 고니는, 가구공장 한 칸에서 박무석(김상호) 일행이 벌이는 화투판에 끼게 된다. 스무장의 화투로 벌이는 '섯다' 한 판! 하지만 고니는 그 판에서 삼년 동안 모아두었던 돈 전부를 날리고 만다. 그것이 전문도박꾼 타짜들이 짜고 친 판이었던 사실을 뒤늦게 안 고니는 박무석 일행을 찾아 나서고, 도박으로 시비가 붙은 한 창고에서 우연인 듯 필연처럼 전설의 타짜 평경장(백윤식)을 만난다. 그리고 잃었던 돈의 다섯 배를 따면 화투를 그만두겠단 약속을 하고, 그와 함께 본격적인 꽃싸움에 몸을 던지기 위한 동행길에 오른다. **창**

[관전포인트]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동작 그만. 밀장빼기냐?" 등의 수많은 명대사를 낳은 수작.
(한국 영화 / 2006.09.28 / 139분)

지난해 OECD가 발표한 '보다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에 따르면 한국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2,124시간. 1위를 기록한 멕시코(2,228시간) 다음으로 가장 길다. 한국의 각종 지표들은 국내총생산(GDP)이 아닌 국민 행복지수(Gross National Happiness)로 통치하겠다고 밝힌 히말라야의 소국 부탄과는 매우 상반된다. 부탄은 국민소득이 절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97%가 행복하다고 답했다. 이는 어쩌면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보내는 여가시간이 많기 때문은 아닐까.



공연장소 블루스퀘어 삼성홀
 공연기간 2016.03.29(화)~2016.06.12(일)
 관람료 VIP석_14만원, R석_11만원, S석_8만원
 홈페이지 <http://musicalmatahari.com/>

전 세계가 전율할 뮤지컬의 탄생 마타하리

뮤지컬 <모차르트>를 시작으로 <엘리자벳>, <황태자 루돌프>, <레베카>, <마리 앙투아네트>, <팬텀>에 이르기까지 성공적인 흥행신화를 이어온 EMK뮤지컬컴퍼니는 그 동안의 제작 노하우를 집약한 창작뮤지컬 <마타하리>의 월드 프리미어를 선보인다. 총 제작비 250억이 투입된 프로젝트로 국내외 최고로 손꼽히는 크리에이티브 팀과 배우들에 의해 2016년 뮤지컬계에 센세이션을 일으킬 전망이다.

<마타하리>는 제1차 세계대전 중 이중 스파이 혐의로 총살당한 매혹적인 무희 마타하리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다. 전쟁을 배경으로 내면에 자리한 진실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아름답고 비극적인 러브스토리를 무대 위에 풀어냈다. 관능적인 춤과 신비로운 외모로 파리 몰랑루즈에서 가장 사랑받는 무희였던 그녀의 드라마틱한 삶과 프랭크 와일드혼의 격정적이고 아름다운 음악, 19세기 말 가장 화려했던 파리와 몰랑루즈를 재현한 무대가 한데 어우러진다.

가장 소름끼치는 허상을 마주하게 될 90분 얼음

수다와 풍자로 무장한 이 시대의 이야기꾼, 장진의 2016년 첫 신작 <얼음>이 무대에 오른다. <얼음>은 잔인하게 살해된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열여덟살 소년과 그 소년을 범인으로 만들어야 하는 형사의 이야기다. 형사역을 맡은 두 배우만이 등장하여 배우와 관객이 만들어낸 범인 사이에서 집요한 심리전을 펼친다.

베테랑 연기자(이철민, 박호산, 김대령, 김무열)들이 만들어가는 실체 없는 인물을 범인으로 만들어가며 관객들은 소름끼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정교한 각본과 연출의 힘이 만들어낸 무대 위의 팽팽한 긴장감, 배우들의 소름 끼치는 연기 앙상블은 새로운 스타일의 무대를 예고한다.



전시장소 수현재씨어터
 전시기간 2016.02.13(토) ~ 2016.03.20(일)
 관람료 R석_5만 5천원, S석_4만원
 홈페이지 <http://ticket.interpark.com/Ticket/>

2016 SeMA Blue 서울 바벨

서울시립미술관은 2016년 첫 기획전으로 젊은 유망작가의 그룹전인 SeMA 블루를 선보인다. 2012년 처음으로 시작된 SeMA 블루는 중견작가를 위한 골드 및 원로작가를 위한 그린과 더불어 한국의 동시대 미술을 세대별로 조명하고 지원하기 위한 SeMA 삼색전의 일환이다.

전시 속의 전시 형태로 구성되는 <서울 바벨>은 현대미술 중심의 예술 플랫폼과 더불어 최근 급부상 하고 있는 스몰 디자인 스튜디오와 한시적 예술 콜렉티브 등 젊고 실험적인 무브먼트의 다양성과 개별성을 상징한다. 이들은 SNS서비스와 스마트폰 등 다양한 매체의 발달로 인해 공간의 물리적 접근성과는 무관하게 산발적 혹은 한시적 성격의 프로젝트를 선보이고 있다.



전시장소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전시기간 2016.01.19(화)~2016.04.05(화)
 관람료 무료
 홈페이지 <http://sema.seoul.go.kr/>

Exhibition

Color Your Life 색, 다른 공간 이야기



전시장소 대림미술관
 전시기간 2016. 02.25(목)~2016.07.31(일)
 관람료 성인 5천원, 학생 3천원
 홈페이지 <http://www.daelimmuseum.org/>

대림미술관은 2016년을 여는 첫 전시로 '색, 다른 공간 이야기'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색(色)'을 주제로 동시대를 대표하는 디자이너와 세계적인 브랜드를 소개하며, 색이 다양한 소재를 이용한 창의적인 디자인과 접목되어 일상을 특별하게 변화시키는 오브제로 탄생되는 과정을 선보이고, 2016년 컬러 트렌드를 활용한 공간을 제안한다. 특히 각 층별로 차별화된 구성을 선보이며, 2층 전시장에서는 '색'을 주제로 한 다섯 아티스트들의 사진 작품들로 일상의 숨겨진 색을 새롭게 발견하는 여정으로 시작하여, 색이 유리, 패브릭, 가죽, 나무 등 다른 물성을 지닌 재료와 만나 발현되는 색의 텍스처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3층에서는 현재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컨템포러리 가구 디자이너들이 독창적인 방식으로 색을 발전시키는 과정을 살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4층에서는 2016년 컬러 트렌드를 대림미술관만의 색다른 해석으로 디자인 거장의 마스터 피스 가구와 함께 공간에 적용시킬 계획이다. [창](#)

LAWSCHOOL NEWS



제34차 이사회, 제35차 총회 개최

2월 27일(토) 제주도 서귀포시에서는 제34차 이사회와 제35차 총회가 개최됐다. 오수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및 24명의 법전문원 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회계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 심의가 이루어졌다. 아울러 2015년도 성과 보고 및 2016년도 사업계획 보고를 비롯해 법전문원 현안 사항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법학전문대학원 신임 원장



차정인 원장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공: 형법



이준섭 원장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공: 자본시장법



김정오 원장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공: 법철학



송오식 원장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공: 민법



김동근 원장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공: 상사법



이종영 원장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공: 행정법



이정 원장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공: 노동법

2017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행계획 공고

- 원서 접수 2016년 7월 5일(화) 09:00 ~ 7월 14일(목) 18:00
- 수험표 교부 2016년 8월 9일(화) ~ 8월 28일(일)
- 시험 일시 2016년 8월 28일(일) 09:00 ~ 16:00
- 성적 발표 2016년 9월 20일(화)

※ 법학적성시험 결과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필수자료로 당해 학년도에 한하여 활용되며, 성적의 반영방법 및 비율 등은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결정됩니다.

가로 열쇠

- ① 예컨대 매도인인 A가 어떤 건물을 B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이를 다시 C에게 2중으로 매도한 경우를 말한다.
- ②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나 제3자(물상보증인 포함)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지만,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면 목적물을 다시 원래의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제도이다.
- ③ 행정심판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규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여 헌법 제107조3항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 ④ 동일 소송절차에 의해 심판되는 사건의 일부를 다른 부분에서 분리하여 먼저 완결하는 중국판결이다.
- ⑤ 사건의 진상을 명료하게 하고 공정한 판결이 되도록 사실상과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질문하거나 그 입증을 촉구할 뿐 아니라, 널리 당사자가 간과한 법률상 사항을 지적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법원의 권능을 말한다.(민사소송법 제136조1항)
- ⑥ 증인신문자가 희망하는 답변이 무엇인가를 암시하는 신문 방법을 말한다.

세로 열쇠

- ①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563조)
-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일정한 위법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현실의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사업주체인 그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하는 규정이다.
- ③ 상대적 항소이유의 하나로서, 법원이 소송사건에 관하여 심리를 충분히 다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말한다.
- ④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 또는 출석하더라도 변론을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 ⑤ 우연적인 사정에 의하여 재물을 득실하는 것에 의하여 사회의 건전한 경제생활의 관습을 퇴폐시키는 것을 실제로 하는 죄를 말한다.(형법 제246조)
- ⑥ 사람의 진술을 증거로 하는 진술증거로서 타인으로부터 전해들은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창**

가LAW 세LAW 낱말 퀴즈



가LAW 세LAW 낱말 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 | | | | | | | | |
|---|---|---|--|---|---|---|--|---|
| | 1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6 |
| | | | | | 6 | 5 | | |
| | | | | | | | | |
| 3 | | 3 | | | | | | |
| | | | | | | | | |
| | 4 | | | 4 | | | | |
| | | | | | | | | |
| | | | | 5 | | | | |



**법학전문대학원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21세기를
이끌어나갈
경쟁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협회
KOREAN ASSOCIATION OF LAW SCHOOLS

